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 강 혁
편집인겸주간 이 정 희
편집장 최 원 일
외대학보(☎965-7018, 961-4152)
외대성문사(☎962-7128, 961-4151)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480
인쇄인 김 영 수

567호 1991년 5월21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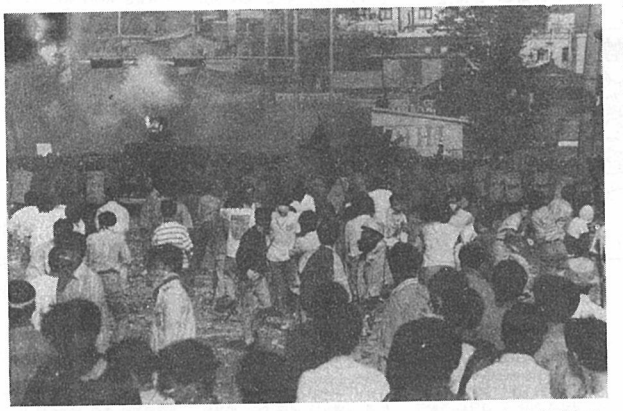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다253호

전민중의 조직화로 부활하는 6월 신화

'87 6월항쟁과 '91 5월투쟁비교

노동자, 계급의식 바탕으로 정치세력화
기층민중의 전면적 투쟁이 이루어 져야



파쇼권력의 말기적 현상

87년 6월항쟁 이후 최고정세에서 전행되고 있는 이번 5월총궐기투쟁은 민족민주운동세력에게 6월항쟁의 신화재현 및 한계극복, 그리고 민민진영의 과학적인 대안정립을 강요하고 있다.

86년 이후 3저호황국면속에서 의사개량화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해 오던 전두환정권은 기층 민중들의 생존권적 투쟁을 일면탄압 일면개량으로 대처해 오다가 87년 4·13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독재정권의 장기집권 의도가 노골적으로 표현됨에 따라 국민대중은 커다란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일면탄압의 일환으로 자행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및 직격탄에 의한 이한열 열사 피살사건, 그리고 민민운동에 대한 물리적 탄압과 민민운동가들에 대한 구속·감금등은 독재권력의 말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권교체기에 일반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지배세력 내부의 분열, 통치체계의 누수현상이 6월민주항쟁의 과정에서 더욱 가속화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실책과 정치력의 무능을 가속화시켰으며, 여야간의 정치타협 가능성을 협소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반군부 독재민주화운동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었다.

그런데 3당합당으로 내각제개헌음모를 추진하고 한소수교, UN단독가입, 허구적 북방정책 등을 통해 독일식 흡수통합을 추진하던 민자당은 공안통치력만을 유일한 정치력으로 삼게 되었고 그 결과 파쇼권력의 말기적 현상이 91년에 들어서서 고삐 풀린 말처럼 폭발적인 사안으로 표출되었다.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인플레에 의한 민중생활의 피폐화, 민중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과 1천4백여명의 양심수 구속, 대책 없는 UR승인, 뇌물외유사건, 수서비리사건, 폐놀사건, 강경대 열사 피살사건, 그리고 차기대권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지배세력 내부의 권력암투 등이다. 한편 보수야당, 특히 신민당은 내각제개헌의 형식적 투쟁만을 통한 권력의 분점 혹은 선거를 통한 대권도전만을 노리면서 민중들의 역량을 기회주의적으로 이용만 하려 하고 있다. 즉 최소한의 민중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보수야당은 이미 사라져 버린 것이다.

분출되는 민중역량

4·13호헌철폐운동과 6월민주항쟁은 학생들을 시발로 하여 다계층의 참여속에서 전개되었다. 4월 하반기부터 본격화 된 중5교·학계·문화계의 자발적인 성명전은 사무직 노동자를 비롯한 광범위한 중간층 대중을 포괄해 내면서 6·10호헌철폐 국민대회로 결집되었고, 역사적 전망을 결여한 비독점 자본가와 소부르조아, 중간계계층 일부의 계급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야당은 정치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반독재 투쟁전선에 합류하였다. 그리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던 명망 제야인사와 농민운동세력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전개된 6월 민주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일정정도의 성과를 획득할 수 있었다.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적인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시 노동자계급은 85년 이후 서서히 조직력을 강화시키면서 계급투쟁의 역량을 준비해오고 있었는데, 6월항쟁을 지도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주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조직적·정치적 여지를 만들어 내지 못하였다. 따라서 6월 민주항쟁은 투쟁의 계급적 관점의 부재로 말미암아 6·29이후 보수야당과 중간층의 완전한 이탈, 투쟁역량을 외회주의적 선거국면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초래시켰으며, 7~9월 노동자 대투쟁이 고립·무원칙한 상태에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조운동의 조직적 구심 전노협의 건설, 대기업노조연대회의 및 사무직 노동자들의 업종회의가 건설되고 이후 노동운동의 양적·질적 비약을 이룬 상태에서 작금의 5월정세를 맞이한 노동운동진영은 임금인상투쟁의 조직역량을 노태우정권 타도투쟁 역량으로 급속히 전환시키면서 5월총궐기 투쟁의 계급적 관점을 견지해 내고 있다. 학생들 역시 5·1메이데이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강고한 노학연대투쟁을 꾸려내려 하고 있다.

5월18일 노동운동진영의 총파업궐기투쟁은 9만 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정권 타도투쟁의 선봉이 되게 하였으며, 가두투쟁에서 지하철노조 강진도 위원장의 「지하철 노동자들이 노태우정권 타도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투쟁할 것이며, 광역의회선거시 총파업을 단행하여 노동자들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라는 말처럼 노동자 계급은 이미 각성된 계급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노정권 타도투쟁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전국 각지방의 노동자들은 심야까지 노정권타도투쟁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민들과 도시빈민 역시 제1·2차 국민대회에서 조직역량을 최대로 끌어 모아 힘찬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기층민중들과 학생들의 투쟁은 사무직 노동자·일반시민·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6월민주항쟁 신화재현의 불꽃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정권타도투쟁의 전선으로

계급적 관점이 불철저 했던 6월민주항쟁은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기초 강화, 민중운동 구심체의 조직화, 보수야당의 계급적 한계인식의 단초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여·야정치인들에게 떠넘겨주어 버렸으며, 투쟁열기의 급격한 쇠락, 그리고 기층민중운동과의 유리현상을 야기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또한 6월항쟁은 투쟁지도부의 정치적 한계점, 즉 전국적 조직력의 미비와 조직적 활동의 부족, 비폭력이라는 대응전술을 투쟁전술로 인식함으로 인해 발생된 투쟁원칙의 경직성, 기층민중을 토대로 한 투쟁전략 및 전술의 한계점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작금의 5월총궐기투쟁에서는 형식적인 집회를 고수하려는 대회회의 지도부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지만, 6월민주항쟁에서 지적되었던 한계점들을 극복해 내면서 대중적 투쟁열기를 결집시켜 내고 있으며, 노동자 계급을 중심으로 한 기층민중들의 전면적 투쟁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코 공안통치분쇄 혹은 내각총사퇴만으로 이번 투쟁이 끝날 수 없다.

따라서 5월총궐기투쟁에서는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관점에 선 대중투쟁전술을 견지하는 상태에서 6월민주항쟁의 신화를 재현시켜야만 하고, 민중민주주의 권력수립이라는 투쟁전략하에 노태우정권 타도투쟁의 전선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또한 투쟁전선의 강화는 「노태우 퇴진」만을 주장하는 대책회의에 의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투쟁전략에 일로매진할 수 있는 투쟁체의 재편을 통해서 이룩해야만 한다.

김 영 수
〈대학원 정외과 박사과정〉

사설

반미의 날에 승회를 추모하며

—해묵은 반미(反美)아닌 날로 새로운 그것

운동진영에서 5월22일을 「반미의 날」로 정한 특별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이날이 「반미의 날」로 되기까지 영향을 주었을만한 몇가지 정황들이 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5월22일은 고도의 정치외치에 힘없은 시민자치가 이뤄짐에 따라, 도시전체가 광온을 되찾던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날 미국무성은 「광주시위 진압을 위해 4개 대대의 한국군을 미국통제하에서 풀어주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미항공모함이 부산항으로 이동중이라는 소식이 전달되는 등 시민들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날이다.

며칠후 미국무성 발표대로 계엄군이 진입하였고 도청함락과 함께 항쟁은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사한 고등학생의 유언대로 학살의 배후에는 미국의 조정이 있었음은 11년세월의 효력속에서 분명히 밝혀진 바다.

그러나, 이느 미국 고위관료가 한 말처럼 우리의 반미는 언제부터인가 「해묵은」그것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가 어떤 의도에서 이런 표현을 썼건간에 우리식대로 풀이하자면 「몸에 달도록 배어 스며든 나머지, 관성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경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지대화 반대」, 「핵에 의한 대북한 선제공격」「120일 전쟁시나리오」「주한미군 계속주둔」「전쟁도발 음모로써의 한미전시집수국 지원협정 강요」등 최근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전략은 11년전 보다 몇갑절 강도높은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말한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반미의식 역시 날로 새로워야 하리라. 또한, 반미의 날 역시 의례적인 5월22일뿐 아니라 1년 삼백예순닷새여야 하리라. 20여일간의 투병끝에 이제는 결국 반미열사가 되고만 박승희학생의 유서를 우리의 지침으로 삼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제자리로 인주해 커피·콜라를 마시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강경대는 싸우고 있다

사람의 죽음은 오직 한번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죽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80년 광주의 원한이 아직껏 해결되지 않고 있는 18일 또 한분의 주검이 광주로 향하였다.

14일 잦기로 했던 고 강경대열사의 장례식은 경찰의 봉쇄로 치루어 지지 못하고 다시 나흘뒤인 18일 장례식과 노제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정부는 열사의 영정을 향하여 최루탄과 돌멩이를 무수이 던졌다. 살아서는 쇠파이프에 찍히고 죽어서는 아스팔트가 허옇게 되도록 최루가스를 뒤집어 써야만했다.

시청앞 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열사의 가는 길에 돌멩이가 가득찬 쓰레기차로 바리케이드를 쌓고 그것도 모자라 수백발의 최루탄과 돌멩이를 영정을 향해 던지는 비인간적인 복거를 자행하는 정부는 그 정치력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의 도덕성의 수준마저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강경대열사의 죽음이후 계속된 젊은 분꽃들의 하나같은 외침 「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일시적 외침이 아닌 역사의 필연적 외침임을 알아야 한다.

단 한번도 민주의 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독가스로, 쇠파이프로 민중을 죽여나가는 비인간적인 정권에게 더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더이상 무엇을 바란수 있겠는가.

씌운 가지는 잘라내야 하고 막힌 물은 뚫어야 한다. 이제 더이상 열사의 영정에 최루탄과 돌멩이가 날아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번 열사의 주검을 더럽히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열사의 가시는길에 명복을 빌며 다시한번 이말을 되새기게 된다.

「경대는 싸우고 있다」

우리의 투쟁을 국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노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온 국민이 거리에 나섰던 지난 18일.
"폭력정권 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퇴진하라!"
"빠바바방……"
우리를 막아선 경찰의 무차별한 최루탄 난사로 거리는 온통 뿌옇게 되었고 호흡조차 힘들정도의 최루가스로 인해 우리의 얼굴은 눈물콧물 범벅이 되어 눈을 뜰 수 조차 없게 되었다.
바로 그때, 양복차림의 한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 손수건을 건네주시며 하신 말씀은 오늘 또 다시 나의 두주먹을 불끈 쥐게 한다.
"노태우가 물러날 때까지,절대 지치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하네"
학우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가두투쟁, 최루탄 가스로 인한 육체의 피로와 이후 구체적 전망의 부재로 인해 마냥 지친 모습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그러나 학우 여러분!
우리는 4월26일 이후 계속적인 대규모 국민대회를 통해 서울에서 전국으로, 5만에서 30만으로,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확산시켜 냈으며 이제는 전국민이 노정권의 퇴진을 하나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제2의 6월 항쟁을 일구어 내느냐 마느냐는 바로 우리 청년학도의 가열차고도 계속적인 투쟁에 달려있습니다.
국민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서울지역대학신문 기자연합

흡산의 소리

학교와 교직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대학당국에 바란다

「교수와 학교 직원, 그리고 학교 행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요즘 대학 당국과 학교 직원들의 태도에서 새삼스럽게 이런 유치한 고민을 자주하게 된다. 이런 고민은 대학 당국과 접촉을 많이 하는 몇몇 학생회 간부뿐만 아니라 외대 학우 대다수가 피부로 느끼는 고민인 것 같다. 왜 올해들어 학교측과의 마찰과 갈등이 유난히 심해지고 있는 걸까? 예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늘 있었지만 올해처럼 대학당국과 직원들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높지는 않았다. 학우들이 지적하는 몇가지 중요한 불만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학우들의 대다수가 학교측의 고압적인 자세가 올들어 심해졌다고 말한다. 학생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각 부서창구나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불친절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걸핏하면 반말이고 퉁명스러우며 마치 자신들이 은전을 베푸는 사람들처럼 학생들에게 뗏뗏하게 나온다는 것이다.

둘째, 또한 상당수의 직원들이 업무에 태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본 대학은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어 일반 기업체나 국영 기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짜증을 내고 대충 해치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정당한 노동 조건을 확보하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취지는 백번 주지하지만 학우들의 권익과 편리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누구를 위한 학사이고 누구를 위한 학교 행정인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세째, 학생회나 동아리 또는 개개인의 민원 사항에 대해 아예 무시해 버리거나 늦게 처리함으로써 학생 활동을 탄압하려는 인상을 먼저 주고 있다.

명지대생 고 강경태 열사 타살 사건이후로 전국민적으로 민주화의 열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 요즘, 우리 학교만 보더라도 연일 수천명에 이르는 학우들의 교내 집회및 가두 시위, 교수님 27분의 시국 선언, 그리고 직원 노조의 추모제 행사 등 온통 투쟁의 분위기가 학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런 일련의 투쟁의 과정들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소중한 역사의 증거물로서 남기고자 하는 아주 정려할만한 시점이 닫치 학생 신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대학 당국의 관료적 작태에 무시당하고 말았다. 외대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영화 모임 동아리에서 시청각 교육원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편집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으나 한마디로 「학생회 활동에 관한 내용의 편집은 허용할 수 없다」고 잘라 비웠다. 교직원및 교수님이 사용한다고 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정각 교육원인가? 진지하게 묻고 싶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16일 「어머니 당신의 아들」이란 영화 상영시 전경 백골단이 학내로 진입해 교문을 뛰어 가고 유리창·게시판 등을 부시고 있을때 우리 학교의 주인이라 외쳐대는 대학 당국, 교직원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지랄탄에 의해 불붙은 잔디밭을 보고서도 누구하나 끄러고 했던 사람이 있었눈가? 끝나고 난 뒤 화염병에 의해 잔디가 탔다는 실언이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해 운용되고 있는 학교 예산으로 경찰에 의해 파손된 학교 기물을 보수·교환하는 일을 하는 곳이 대학 당국이나 교직원인가? 진정으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학생회는 교수, 직원과 더불어 외대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인데 이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분명한 분열 공작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학생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권익옹호를 위해 더이상 학교측과 직원들의 태만하고 무성의하며 관료주의에 빠진 자세를 지켜볼 수만은 없는 입이다.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외대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는 커녕 서로에 대한 불신만 높아질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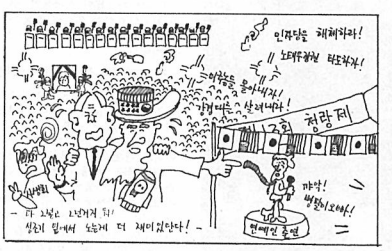
우리는 먼저 대학 당국과 직원 여러분께 냉철한 자성과 더불어 자세와 방상의 전환 그리고 시정을 요구한다. 교수·학생·직원간의 신뢰는 서로를 인정한 가운데 메타적인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외대 사랑의 기치아래 대학 당국은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나 주장을 과감히 수용하고, 직원들은 집단 이기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외대 발전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학생은 교수님들을 존경하고 교수는 제자들을 사랑하며 직원과 학생간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될 때 우리 에국 외대의 발전은 가능할 것이다.

〈총학생회 총무부장 사범·독교4 박길정〉

대학에 나부끼는 성조기

—청량제를 끝내고



지난 10~11일 이틀간에 걸쳐 제13회 모현학사 축제인 「청량제」가 있었다.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마당에 무슨 축제 놀음이냐고 연세대학교 문과대 학우들의 대동제 거부 움직임이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미 「청량제」가 지난 지금 축제 행사 자체를 거부했어야 마땅했느니 하며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고 싶지는 않다.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청량제 기간 내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광란적인 디스코 놀음과 외부에서 초청한 개그맨의 공허한 말장난뿐만이 아니다. 그것들보다 더욱 우리를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 만든 것은 축제 기간 내내 남학사, 여학사 앞마당에 주렁주렁 늘어진 만국기의 행렬이었다.

캐나다, 영국, 프랑스, 대만, 서독, UN 그리고 너무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널려 있는 성조기와 일장기.

일장기야 그리기 쉬워서 줄줄이 늘어 놨다고 하면 그런대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멀어 50개나 넌 찍거리는 성조기는 그리기도 까다로운데 왜 그리 많았단 말인가. 게다가 그 성조기, 47년간 우리 민족의 하늘을 찢빛으로 덮어버린 미국의 상징인 그놈의 이갈리는 성조기 아래에서 꼬부랑 노래를 들으며 미친듯 춤을 추어댄 이들은 바로 우리 학우들이었다는 사실은 대체 어찌된 노릇인가.

우리네 민중과 마찬가지로 역시 독점자본가들에게 수탈 받는 미국 민중에게는 자랑스럽고 소중할 성조기의 의미를 생각지 않는 한낱 철없는 극단적 반미주의자의 시비나 치기쯤으로 몰아 세우지 말자.

만일 그렇다면 89년 거리를 가득 메우며 임수경 대표의 방북을 환호로 맞이하고, 조국 통일은 반미없이 결단코 이룰 수 없다고 목놓아 울부짖던 학우들은 무엇이며 반미를 외치며 거리낌없이 쓰러져 간 조성만 열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 시대 최후로 남은 양심의 보루이며 가장 선진적 대중 조직인 대학에서 대학인 스스로가 성조기를 걸어 놓고 큰잔치를 벌인다면 이후로는 어느 누가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는가.

국기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 기호,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의 참삶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무시 못할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47년간이나 우리 민중의 참삶을 거스르는 질곡, 그리고 반역의 바람, 미국의 상징언어인 성조기를 반국기에서 뜯어내 마음속에서 제한줄없이 불태워야 한다.

적어도 우리 시대에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재는 기준이다.

또한 자주없이 진정한 민주없다는 진리를 피부로 깨우쳐준 5월일 에야….

〈인문·언어1 공태희〉

독자 만평

광대의 설움—이러구 살아야 하나!

〈자연·화학2 이희관〉

피꽃 피던 어제가 민주화의 열기로 폭염의 광주로.

—CS멍텅구리—

광주의 어제와 오늘, 남부 전선 이상없다.

—하이바—

어제 폭우, 오늘 여전히 호림.

—to you—

오월이면 언제나 남한에서 제일 뜨거운 곳, 왜냐하면 투쟁의 열기 때문에.

—광주에서 삼천리 안에 사는 사람—

아직도 그대론 걸!

—망월동 묘지 문지기—

광주의 어제는 피맺힌 울분이 있었고 광주의 오늘은 승리의 환호가 있다.

—D—

백지 궤자보

주제: 광주의 어제와 오늘

다음주 주제는 「제5기 전대협 출범에 바란다」입니다.

아, 옛날이여!

—광주사태 참가 공수대원—

어제 광주는 순수, 오늘 광주는 혼탁, 내일 광주는 민주.

—영원한 외대사람—

달력에서 5·18은 빨강색으로 안돼요?

—퍼사리—

작년 3위, 올해는 우승.

—해태팬—

광주나 유주나 현주나 이제도 호박이고 오늘도 호박이지. 전대 머리가 노가리 된다고 호박이 수박되나?

—이쁜 여우—

그때는 총이라도 쏘았지. 지금은 최루탄만 쏘고도 욕먹네.

—노가리—

금남로와 도청이 배후세력과 불순세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주시장—

明水塘 명수당 북경대 교수

지난해에 나는 우리대학에서 처음으로 해외연구교수(일명 안식년)제도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일년간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더구나 때마침 이란의 태해란 대학교 어학연구소에서 6개월간의 초청장도 받아 놓고 있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그동안 거들이 없어서 미루어 두었던 페르시아어—한국어 사전 짜기에 정성을 바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란에서 6개월간 지낼 수 있게 되어 가슴속이 흐뭇하였다.

그러나 막상 이란에 도착하여 일주일이 지나니 고향생각, 집안일 등이 생각나고 또 그것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비록 좋은 대우를 받고 일에 열중한다 해도 식사를 매냥 혼자한다는 것이 매우 죄조했다. 또 주말이 되면 한주일의 피곤을 푸는 방법이라고는 고작 텔레비젼을 쳐다보는 것 뿐이었다. 도시가 방대한데다 대중 교통수단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곳에 일시적으로 머무는 외국인은 콜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시내에 가봐도 만날 사람도 없고 몇시간을 줄겸게 보낼만한 곳도 없는 따분한 곳이어서 시내 나들이를 하겠다고 콜택시를 타는 것도 무료하여 한두번 나간 뒤에는 그만두었다.

그럭저럭 한달이 지난 즈음에 북경대학교 이란어과 교수라는 분이 나타나서 같은 연구소와 같은 호텔에서 나와 생활을 함께 하게 되었으니 커다란 기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도 역시 중국어—페르시아어 사전 편집관계로 왔기에 우리 들은 그후 쉴과 바늘 사이처럼 하루생활마저 같은 보조를 이루었다. 즉 아침에 같은 시간에 만나 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같은 차로 연구소에 나가 오후시까지 각각 자기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같은 차로 호텔에 돌아온 후 각각 자기 방으로 들어가 저녁 7시경에 다시 호텔 식당에서 만났다. 식사가 끝나면 같이 30분간 산보를 한 후 헤어졌다.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게 되고 또 여유있는 생활을 하다보니 자연히 세계 각 지역과 모든 생활 분야에 대한 의견도 나누게 되었다. 그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체제 등도 논의하고 또 심지어 부분이 일을 하지 않는 한국보다 못살게 되었느냐』이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너의 나라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원조를 받았지만 중국은 외부로부터 전히 도움을 받지 못한데다 10년간의 문화혁명이란 소용돌이 속에서 건설은 고사하고 오히려 퇴보만 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을 들는 순간 지난 40년간 우리의 혼란된 정치사회에서 소리친 배판자본세력과 종속관계의 탈피라는 말과는 너무나 모순된다고 느꼈다. 그와 함께 마치 소경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자기가 아는 것만 내세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려는 것 까지는 좋으나 강압하는 것은 어딘가 잘못이란 생각도 들었다.

낯선 땅에서 만난 그와 나눈 이야기는 세상사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김 정 위
〈이란어과 교수〉

북경대학생과 우리 학생들의 데모도 얘기하였다. 또 중국과 한국의 생활수준과 자본축적을 말하게도 되었다. 그는 요즈음 중국에 한국관광객이 꽤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왜 중국관광객은 한국에 오지 않는가 하고 되물었다. 이런 얘기를 끝에 결국 나는 중국과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차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불쑥 물었다. 『중국에는 당신이 얘기했다시피 넘치노스가 모두 지난 40년이상 줄곧 일을 했는데도 왜 가정주부를 비롯해서 여자들의 대감탄할 여유로운 오늘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메케한 공기속으로,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아래로 나서게하고 있는 현실앞에 하고자 하는 말도, 꼭 해야만 하는 말도 많습니다.

외대학보 독자 여러분, 우리 대화합시다. 여러분의 서툰 글귀, 어설픈 문맥 속에서 젊은 호흡과 열정을 나누어 봅시다. 흡산의 소리는 언제나 넉넉한 공간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려 하십니까?

오월의 하늘은 어제보다 더 적극적으로 햇살을 쏘아대고 함박웃는 친구의 얼굴도 눈이 부십니다. 화려한 계절을 시샘이라도 하듯 우리의 가슴을 꽉 메이게 하는 답답한 사건들도 쉼없이 터져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창밖의 풍경에 지금 말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야기들을 혼자서만 되뇌이지 말고 외대학보의 1명3천 독자와 함자로 만나 이야기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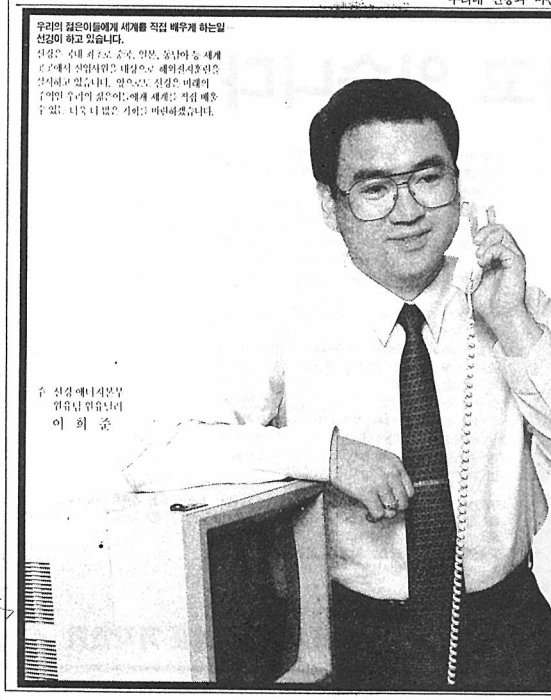
자, 지금 막 다듬은 신선한 글을 손에 쥐고 가져없이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 학생기자실로 오세요. 글 한편당 메수는 2~7메이고, 소정의 원고료도 드립니다.

〈여론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직접 배우게 하는일 선경이 하고 있습니다.

선경은 국내 최초로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세계 곳곳에서 선업사원을 대상으로 해외전지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경은 미래의 주인인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로 직접 배울 수 있는 더욱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갈 것입니다.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주 선경에너지본부 원유팀 원유딜러 이 희 준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력과 종합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원유딜러

지금 시간 밤11시… 컴퓨터에서 연신 토해내는 기계음만이 동료들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다.

국제정세의 기류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국제원유시장에서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해 촌각을 다투며 거래를 성사시켜야 하는 나의 직책은 원유딜러…

컴퓨터를 통해 시시각각으로 입수되는 국제원유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원유의 품질, 가격 등을 비교, 예측하여 산유국에 구입의사를 타전하고 원유를 구입 하기까지는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다.

신입사원 해외전지훈련에서 맺은 인연으로 수월해진 비지니스

오늘은 원유수입국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접촉한 중국측 석유회사로부터 받은 거래조건에 대한 결정사항의 검토가 끝나면 퇴근이다.

마침 이번에 거래하게 된 중국측 회사와는 남다른 인연이 있다.

2년전, 국제적인 감각과 안목을 키우기 위해 참가한 신입사원 해외전지 훈련시 방문했던 회사와 비지니스 파트너가 될줄이야.

'89해외전지훈련중 북경천안문광장에서

이번 거래상담은 한층 수월해질 것을 기대해 보며 해외전지훈련시 중국에서의 값진 체험들을 되새겨 본다.

선경에서 오셨습네까? 세계 반갑습네다!

우리 일행을 얼싸안고 반겨준 하얼삔 한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동포에. 23시간 동안 만주벌판을 가로지르며 중국의 거대함을 다시금 인깨워준 하얼삔발 베이징행 열차. 살아 움직이는 중국무역의 전초기지 상하이. 가나긴 겨울잠에서 중국을 깨어나게 만든 수도 베이징에 넘실대던 민주화와 개방의 물결들 모두가 소중한 체험으로 남아있다.

내게 처음으로 세계를 알게해준 신입사원 시절의 해외전지훈련…

지금도 귓가에는 아득히 펼쳐진 만리장성에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목청껏 외치던 패기의 함성이 메아리쳐 들려 오는듯 하다.

오늘 퇴근길에 서쪽하늘에 빛나는 별을 볼 수 있을까?

SUNKYONG 鮮京그룹

(주)선경·선경인더스트리·(주)SKC·선경매그네틱·쉐라톤워커힐·선경건설·(주)유공·유공해운·(주)유공가스·유공아코화학·(주)동국상사

노정권 타도로 하나된 국민대회

서울, 경찰 강경저지에 맞서 밤늦게까지 공방전
성남, 풍자극·즉석 시민 발언대 개최로 눈길 끌어

지난 18일(토) 고(故)강경대군 장례식 운구행렬이 신촌로타리를 지나고 있다.

명지대 강경대 열사의 죽음 이후 민족민주세력의 격앙된 반민자당 투쟁은 18일(토)「제2차 국민대회」를 통해 노태우 정권 퇴진 투쟁으로 모아지고 있다.

범국민 대책회의가 주관한 이번「제2차 국민대회」는 강열사의 장례식과 5·18 광주민중항쟁 11돌 기념일이라는 상징적 계기가 결합됨으로써 전국 81개 지역에서 시민·학생등이 참가한 가운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제2차 국민대회」를 맞아 양캠퍼스 학생들은 사전 학내 출정식을 가지고 18일(토) 서울·성남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민대회를 전개시켰다.

지난 18일(토)「강경대열사 장례식」과「제2차 국민대회」가 10만여명의 애국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찰의 원천봉쇄와 시위저지를 뚫고 강행되어 서울시내 중심가 곳곳에서 힘찬 투쟁이 전개되었다.

노제장소인 서울역앞 광장이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자 장례식은 신촌로타리와 이화여대 입구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으려는 시민·학생들의 격렬한 시위 후 오후6시경 공덕동 로타리에서 노제를 치루며 끝났고 서울역 앞 광장에서는 4만여명의 시위대가 모여 밤늦게까지 집회와 시위를 벌였다.

공덕동 노제를 마친후 운구행렬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지난 19일(일) 오전4시15분경 광주에 도착해 오후 10시경 도청앞 광장에서 8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노제를 마쳤다.

한편 지난 18일(토) 국민대회에선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의 서부지구 학교 학생들만 장례식에 참가하고 나머지 동, 남, 북부지구 학교 학생들은 종로와 을지로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전개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경 종로2가에서 3가까지의 6차선 도로를 점거한 5천여명의 학생들은『해체 민자당, 타도 노태우』를 외치며 가두투쟁을 벌였다.

경찰의 무차별 최루탄 난사로 잠시 해산된 시위대는 청계천 4가를 지나, 오후4시경 을지로 3가에서 시청쪽 도로를 봉쇄하고 있는 경찰에 맞서 도로를 점거하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1시간 30여분 동안 격렬한 시위를 계속했다.

오후 5시30분경 을지로를 빠져나온 시위대는 미도파백화점앞 도로로 진출하려 했으나 경찰이 저지하자 명동역앞 도로를 통해 신세계백화점 앞으로 대오를 정비했고 이시이 에국 시민과 전노협·업종회의등의 노동자, 학생을 비롯한 1만5천여명의 시위대가 합세하여 2만여명으로 불어난 시위행렬은 도로를 가득 메우고 2시간30여분 동안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계속했다.

한편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은 18일(토) 오후 5시20분 성남시청앞에서 성남노조연합산하 노동자들, 시민 등과 연대하여 전체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5·18 광주항쟁 추모대회 및 노정권 퇴진을 위한 제2차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성남 각 지역에서 선전전을 벌이고 오후 4시20분경부터 성남시청 앞으로 집결한 용성총련(본교 용인캠퍼스 학생 1백60여명 참가)산하 학생 5백여명은 성남시민 선전전을 벌이며 연좌시위를 하였고,「공안통치 종식 및 노태우 정권 퇴진을 위한 성남지역 범시민 대책회의」라 씌여진 대형 깃발과「중·고등학생」이라 씌여진 깃발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4시45분경에는 성남택시노조연합 소속 택시 40여대가 도열하며 경적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5시부터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성남시민이 대거 동참하여 집회인파는 2천여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집회에서 성남지역 범시민 대책회의 의장 구행모 목사는『오늘 집회에 모인 이들은 80년 5·18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이들』이라며『5·18 광주항쟁 정신을 계승하여 군사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자』고 말했다.

지난 18일(토) 성남시청 앞에서 열린「제2차 국민대회」중 성남 택시노조 소속 40여대의 택시들이 경적 시위를 벌이며 시위대를 격려하고 있다.

노정권퇴진·백골단 해체 요구

용성총련 결사대 무기한 농성돌입

주민교회서, 성남시민 10명 8일째 단식

「살인정권 노태우정권 퇴진을 위한 구국 무기한 농성」이 지난 5월14일(화)부터 성남 주민교회(수정구 태평2동3309-48)에서 14일 성남 지역시민 4명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데 이어, 15일 6명의 성남시민이 지지 단식농성에 들어 갔고, 같은 날 본교 용인캠퍼스 학생 7명이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구국 결사대 명의로 농성에 돌입, 현재 교회 지하에 있는 교육관에서 시민단식농성과 함께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용성총련 구국결사대 참가 본교 학생은 전태진(총여학생회장·체코어4), 우정명(독어3), 김기윤(체코어3), 김용인(사학2), 조희진(체코어2), 이희진(경제2),권혁기(유고어1)등 7명이며 이들 용성총련 구국 결사대는 △노정권퇴진 △민자당 해체 △공안 통치 중단 △공안 내각 해체, 책임자 구속 처벌 △과학기구·악법철폐, 양심수 석방 △야당의 투쟁 참여 △미국의 독재지원 중단과 미대사 추방 △노정권의 일사들에 대한 왜곡 중단 △제도언론의 각성 촉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대표로 단식농성 중인 최재청(30세·노동자)씨는 『곧이 죽을지언정 노정권 타도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며 『우리는 노정권의 탄압으로 4천만 민중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기한 농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연대의식이 절실한 시기에 노학·시민연대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으며, 이후 6월투쟁에 학생들의 투쟁 참여를 촉발하는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인, 민주대연합 관련 강연

민주세력단결·대중공세 강조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5월16일(목) 학생회관 지하 무용실에서 학생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연합 정책위원회 간사 최용주(전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씨를 초청, 「현 정치 속에서의 민주대연합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최씨는 이날 강연을 통해『민족해방의 과제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 정파, 개인, 집단이 하나의 정치적 힘으로 단결해야 한다』며『현정권을 반대하는 보수야당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수용하는 입장에서 민주대연합전선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씨는 92·93년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권력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커다란 공세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야권의 통합이 가장 큰 관건이며 야권통합을 민족·민주세력이 주도적으로 벌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연 후 참가학생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 『미제 과쇼정권을 완전분쇄하지 못한 후 새로운 정부를 수립했을 때 청년학생 및 민중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최씨는『그렇기 때문에 운동지도부와 대중과의 강고한 이른·실천적인 연대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정부가 세워지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

또 『폭력혁명 주장세력까지 민주대연합에 포함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이들은 현실적인 대중운동을 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대중의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에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포함여부를 긍정했으나 주도세력이 아님을 밝혔다.

계속 잇따라 열리고 있는 현시국 관련 집회들을 통해 『민주정부 수립의 목소리가 고양되고 있는 때에, 이날 강연회는 학생들에게 민주정부 수립의 대의를 정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되었으며 학생들의 질의도 민주정부 수립 후의 방향, 여성들의 참여 그리고 혁명의 방법 등 폭넓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강연회가 학생들의 사전 지식미비로 민주대연합에 대해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한수도

▲광주시민 백골단에 맞아 중태,
－광폭해진 탄압속에 밝아오는 혁명전야
▲강열사 장례식 치뤄
－경대있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노정권, 노내각 개편 예정
－장기집권을 위한 당신만의 선택.

빈의자

전국에 넘쳐 흐른 민심

▲『이미 이긴 싸움, 끝까지 해볼랍니다』

학생들, 시민들의 숲에 겨누이진 살인적인 경찰의 최루탄 연기속에서 이나라의 참주인인 국민의 함성은 하나로 울려퍼지고 있었다.

지난 18일(토) 강경대군의 아버지와 어머니,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만명이 넘는 경찰의 철벽수비에 노제는 결국 서울역과 시청에서 치뤄지지 못했고, 강군은 천추의 한을 겉으로 간직한 채 망월동 묘지에 묻혀야 했다.

정부에서 제시한 서울역노제조차도 결국 정부의 날카로운 바늘에 의해 터졌다. 국민의 싣날같은 인간적인 희망은 찢겨져 버린 것이다.

강군의 죽음이후 밀려 온 강한 열풍을 지켜본 국민들은 그 알풍이 단지『체제전복, 불순세력들만의 무엇 무엇···』이라고 운운 하는 것에 가슴앓이를 심하게 느꼈을테고, 스스로「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란 물음에 결론짓고는 장례식날이며 5.18광주항쟁 11주년 기념일인 그날, 40만명이라는 엄청난 수가 아무런 배후나 강요없이도 전국 곳곳에서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정부와 그 우두머리인 노태우 대통령의 말과 행동들을 보면 계급이 존재했던 조선시대의 신문고 제도만도 못한 점들을 느낄것이다. 살 집이 없어도, 죄없이 사찰을 당해도, 마음 놓고 먹을 물이 없어도, 친구와 자식이 죽어도 절대로 신문고를 두드려선 안되고, 두드릴 북조차도 없다.

표현의 자유로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도, 집회·결사의 자유도 공안의 쇠파이프에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우물이 깊으면 두레박 줄도 길어야 한다.」「물을 많이 푸려면 두레박이 커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 청와대의 충정이린 비서관들과 돈놀나 있다는 사람들의 말씨에는 들지 않는 노태우 대통령은 이말을 새겨 들어야 한다.

두레박 줄이 너무 짧다. 제법 물에 닿을 만한 줄이 있어도 두레박이 너무 작다. 두레박이 커도 깨진 두레박이다.

▲왜 국민의 소리를 크고 실한 두레박에 가득 담지를 못할까?

간단하다. 커다란 두레박에 물을 가득 담으면 썩은 줄이 「뚝」끊어져 버려 두레박을 깊은 우물에 잃거나, 가득담아 들어 올릴 힘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물 밑에서 샘이 계속 솟아 오르고 있다. 이를 보고는 정권에 아첨하던 제도언론이 정부를 간간히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교수, 교사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지난 17일(금) 국립대 교수들도 나섰다. 여당에서 조차도 노재, 봉 내각의 총사퇴를 초읽고 있는 시국이니 말이다.

이제 남은 것은 샘이 계속 솟아서 우물밖을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다.

〈이원영〉

제9회 외대 학술상 논문 모집

본보는 올해에도 학술상 논문을 모읍니다. 올바른 학술풍토의 정립을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땀이 담긴 학술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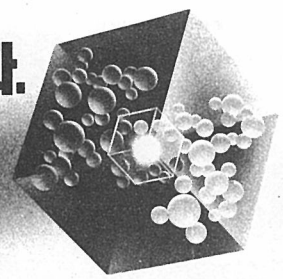
◎응모자격:본교 재학생
◎모집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등 3개부문(원고 80매 이내)
◎심사위원및 상금:추후 발표
◎제출처:외대학보사(서울;학생회관2층 학생기자실, 용인;학생회관2층 학생기자실)
◎마감일:7월31일(수)
※단,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외 대 학 보

21世紀挑戰

제일합섬

제일합섬은
신소재를 자원화하는 테크놀로지로
보다 앞서가는
21세기에 도전합니다.



상식밖의 세계가 눈앞의 현실로 재현됩니다.

기술혁신의 방아쇠－
미래의 연금술－
21세기의 신물질－
신소재는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21세기 태평양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필수 연구과제이며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해줄 신자원입니다.

칠보다 강하고 고무보다 탄력이 있는 재료－
실처럼 구부릴 수 있으면서도 초경량의 신소재－
태양광을 직접 동력으로 변화시켜주는 플라스틱－
제일합섬은 신소재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화학정신으로, 전혀 상식밖의 세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섬유 신소재사업 ●베이스 필름사업 ●플라스틱 수지사업 ●플랜트 수출

아·태 경제협력체의 발전 전망

세계경제전략의 또하나의 축

지역통합체

글싣는차례

1. 현시기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정세와 전망
2. 유럽경제체제를 통해 본 지역주의의 구체적 내용
3.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체제의 본질
4.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체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정치·경제적 영향

이 병 승
〈대학원국제관계학박사과정〉

상황 1:제2차대전기에 일본 제국주의는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지역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통합시키려 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은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통해 일본의 침략에 맞섰다.

상황 2:40여년이 지난 후 현법상 평화주의를 확립한 일본은 아시아의 경제동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이 어느 한 나라를 경제붕괴한다면 그 나라는 완전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싫든 좋든 세계경제통합의 물결속에서 일본에 더욱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두가지 상황은 역사의 아니러니를 말해주고 있다. 또한 과거 일제의 식민지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 중심의 지역경제통합의 추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구체적으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과제를 말해주고 있다.

이 글은 EC의 통합예정을 앞두고 세계경제가 지역블럭화되어가는 흐름 속에서 아시아지역 경제통합체의 가능성과 성격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일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질프전쟁에서 날아다니던 미사일의 핵심부품이 거의 일제라는 사실이 말해주듯이 이미 세계경제의 거대한 공룡이 되어 있는 일본이 의도하는 아시아 질서개편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

세계경제는 통합화의 경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통합은 선진국간의 수평적 통합과 선진국에 대한 후진국의 수직적 통합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사이에 피할 수 없는 모순과 전쟁 불가피성을 말했던 레닌 시대와는 엄청나게 다른 현상이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에서도 국제자본주의의 주장이 강하게 나올 정도로 분명히 이전의 시대와는 다른 분석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기업과 초국적 은행의 상호침투와 과학기술혁명의 영향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독점체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과학기술의 진보 둘째,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생산의 국제화와 새로운 국제분업질서의 형성,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제적 통합의 진전. 세째, 과학기술혁명에 따른 경제구조의 다부문화·다층화 및 계급구조의 변화 넷째, 과학기술혁명 시대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기동성이 인정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 지역의 GDP가 세계경제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46.6%에서 1980년 41.2%, 1986년에 52.2%로 점차 증가하면서 세계의 절반이 넘어섰다. 그리고 이 지역의 수출비율은 세계 총수출에 대해 1970년 29.9%, 1980년 31.3%, 1987년에 37.5%로 1980년을 기점으로 대서양무역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제협력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과 경제규모, 경제발전단계의 상이성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의 국제동향은 아·태지역의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국제경제에서 다자간주의를 기본으로해온 GATT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GATT체제의 주축국이었던 주요선진국들이 자국의 무역문제를 쌍무적 협정으로 해결하려는 지역주의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 GATT체제 아래서 높은 경제성장을 해왔던 신흥공업국가들에게 유럽의 폐쇄적 지역경제화는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 통합의 구상

아·태지역경제통합의 구상은 계속 제안이 되었었고, 실제 작은 규모의 기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동남아국가들의 ASEAN,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CER,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FTA가 있다. 1990년 12월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동아시아경제그룹(EAEG)을 제안하며 유럽과 북미지역의 경제통합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세안(ASEAN)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독자적 지역경제통합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소련도 이지역의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을 하는 국가의 경제규모나 영향력을 보았을때 일본 중심의 아시아태평양공동체가 현실성이 있는 것이다. 이 구상은 그야말로 하나의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표현상의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일본이 아시아지역을 실질적으로 통합해가는 주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캄보디아 분쟁의 해결에서 보여준 일본의 힘을 볼 때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아·태지역을 이전부터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 제의는 1959년 카와노가 제안한 「태평양연합 창설」과 고지마의 제안인 「태평양무역지대의 창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오히라 수상의 태평양공동체, 그뒤 정치군사적 성격이 가미된 종합안보구상, 나까소네 이후 태평양 공동체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 일본의 아시아지역의 역할을 인정해줌으로써 더욱 구체성을 띨 전망이다. 미국은 미일군사동맹을 기초로 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주도권을 유지하고 경제통합을 일본과 같이 주도할 속셈이다.

그러면 일본에게 아·태지역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일본의 전체 수입에서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1988년말 기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원, 연료의 수입에서 아세안(ASEAN) 중심의 지역이 중요하다. 한편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에서도 아·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2.2%이다.

(아래도표 참조)

아·태경제통합화 경향의 성격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아·태지역의 경제통합화의 경향은 EC의 경우와 질적으로 매우 다른 것이다. EC의 경우 비슷한 역사적 경험, 비슷한 규모의 경제, 유사한 경제발전경로 등 통합에 유리한 조건이 많다. 그러나 아·태 지역은 경제통합에 불리한 조건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아세안과 같이 아·태지역 내의 소규모블럭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과 전체적인 기구가 만들어진다해도 EC 같은 형태와는 크게 다를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해준다. 또한 현재의 추세로 보아도 일본과 미국을 정점으로 하고 NIEs와 같은 공업국가와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원자재 수출국이 하위 구조를 형성하는 차별적 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왈라슈타인이 세계체제론에서 말한 중심—반주변—주변의 전형적인 관계가 아·태지역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과 아시아 신흥공업국(ANIEs)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한 후진국의 관계는 생략한다. 이 관계는 주로 목재, 광물, 석유 등의 원자재에 치중되어 있다.) 이 관계는 자본주의 국제분업질서 속에서 일본이 아시아 NIEs를 다각적인 생산거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통상백서」(1987년판)을 보면 일본기업이 아시아 NIEs에서 생산거점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엔화평가절상(1985년 1달러에 240엔에서 1988년초 120엔)로 인해 아시아 NIEs에서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었다는 점, 두번째는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태평양지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기기계에서 기술집약부문을 일본에서, 노동집약부분을 아시아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기업내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세번째로 아시아 NIEs는 일본의 역수입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계 기업이 아시아 NIEs에서 해외생산하면서 노리는 것은 새로운 세계적 경쟁조건의 확보와 다국적화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일본의 아시아 NIEs투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서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이것은 위의 세번째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다. 이미 전기기기, 정밀기계 부문에서 일본의 대기업에 의한 아시아 NIEs산 저가격품의 대일공급 거점확보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부품, 집적회로, 통신기기 부문의 부품에 관해서도 현지의 일본기업을 통해 일본에 역수입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역수입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을 피해 미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우회생산의 거점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아시아 NIEs는 다른 저발전 아·태국가들에게 자본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의 『포춘』지가 선정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제외한 세계 500대기업순위」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이 특히 주목된다. 1976년 처음으로 순위에 등장했던 한국, 대만의 기업은 1986년에 21위의 삼성을 선두로 3개사가 상위 40개사에 들어갔고, 한국기업 11개사, 대만기업 3개사 합계 14개사가 500개사 내에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비대화가 곧 다국적기업화를 의미한다면 한국과 대만의 기업은 대외직접투자를 증가시키면서 후진국에 대한 유리한 자본공급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86년까지의 누계는 한국이 50건에 8억달러, 대만이 251건에 2억7천만달러였다. (최근의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클 것으로 예상됨) 1건당 투자액도 한국이 122만달러, 대만이 108만달러이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집중하여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은 아시아 NIEs를 하청적 성격이 강한 수직분업체계 속에 편입시켰으며 그외 후진국가들을 원자재의 공급원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NIEs는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인 성장을 보장받으면서 다른 국가들에 자본을 수출하는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맺음말

이제 자본주의의 국제적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그리고 1992년 유럽공동체시장의 통합의 예정에서 보듯이 점차 지역블럭화의 추세로 가고 있다. 아시아 대평양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거나 세계경제 속에서 생존하려는 대응적 차원에서 보거나 이 지역 경제협력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지역은 유럽과는 다르게 통합으로가기에는 이질적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미국이 주도하는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로 편입되고 있다.

최근 국제경제질서동향은 아·태지역의 공동대응을 필요로 한다 〈사진:타임지〉

국제독점체, 초국적 기업·은행에 대한 독자적 지역경제 불가피

아·태지역, 세계 총수출 비중 날로 증가추세

아시아 각국의 대일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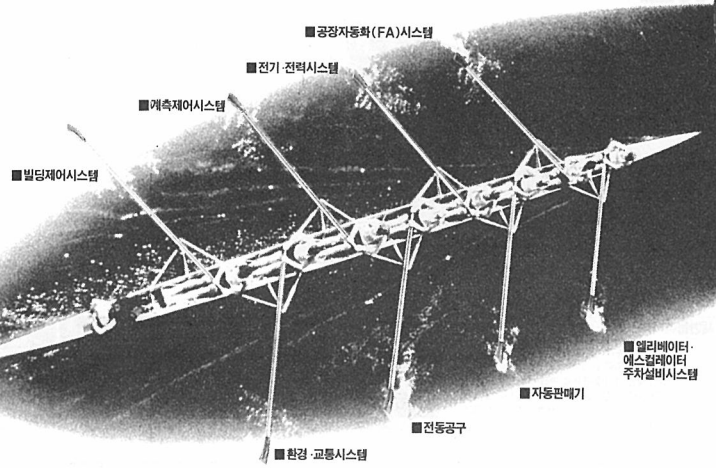
	수 출	수 입	직접투자	2국간정부개발원조
한 국	16.5	24.4	48.0	90.7
대 만	11.0	28.0		
홍 콩	4.7	23.2	30.1	
싱 가 포 르	10.1	18.8		57.6
인 도 네 시 아	54.6	33.5	36.9	37.5
말 레 이 시 아	22.1	24.4	20.9	55.2
태 국	14.4	23.8	31.9	67.9
필 리 핀	22.2	19.2	18.0	55.8

쾌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회 창조

럭키금성

산업 전 분야 -
금성산전이 있습니다

토탈파워



공장자동화(FA)기기 및 시스템, 각종 빌딩설비 및 편의시설에서 전기·전력기기 공급까지
金星産電 部門의
綜合技術力을 만나보십시오.

금성 産電部門
●金星産電●金星計電
●金星機電●金星아니텔
■본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3(금성전 트윈타워)
●대표전화 ☎7 1114

토탈파워…이 정도의 규모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장자동화(FA)분야 ■전기·전력 분야 ■빌딩자동화분야 ■환경·교통시스템분야

역사와 더불어 숨쉬는 열사들

지난 5월18일 강경대 열사의 운구직전 여성 노동자 이정순씨가 분신했다. 〈사진:한겨레신문〉

외대논단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26일 강경대 학우가 노태우정권의 파쇼통치 하에서 사북제포조 (일명 백골단)에 의해 쇠파이프로 살해당한 이후 전남대 박승희 학우 부터 시작된 분신, 투신은 5월 20일 현재까지 광주의 한 시민(권상수·남·23세 광주상고졸)이 전경에의 폭행에 의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버린 이들을 일컬어 「열사」라 칭한다. 그렇다면 과연 열사란 무엇인가?

유신치하 암울했던 상황에서 「오적」등으로 필명을 날렸던 김지하는 최근잇따른 분신과 투신에 대해 「경박스럽게 목숨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김지하의 말대로 「열사」란 「경박스럽게 목숨을 내버린 이」들을 운동권 내부에서 조금 미화하고 조작하여 부르는 말인가?

필자는 여기에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겠다. 열사의 사전적 의미는 「절개가 굳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사전 마저도 이미 그 논리가 지배자의 논리 이상에 다름 아니기에 열사의 참의미를 왜곡 시킬 소지가 충분하다. 이글에서는 열사의 원론적 의미를 짐게 언급하는 것 보다, 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 남한의 변혁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열사들을 살펴보는 과정속에서 열사의 참 의미를 내오도록 할 것이다.

전태일 열사, 그 이후

고도성장의 그늘속에 가려져 남한의 노동자들이 일일 15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며 자신의 몸과 정신을 자본에게 강탈 당하고 있을 1970년, 한국 변혁운동사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사건이 일어났다. 12, 3세의 어린 「시다」들이 15시간의 중노동 속에 쓰러져 가는 것을 지켜 보던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70년 11월 30일 「근로기준법」책을 가슴에 안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근로기준법에대한 화형식을 거행했다. 그가 병상에 누워 남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어머니 내가 못다 이룬 일 어머니가 꼭 이루어 주세요…」 이러한 몇마디 말은 남한의 독점재벌과 지배계급에게 하나의 비수로 남아,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당시까지의 노만적 운동관과 노예관을 극복하게 했고, 저금껏 민주화의 최선봉에서 투쟁하는 많은 열사와 전사를 낳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YH무역상사의 직공으로 신민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무장전경의 광주교도소 수감도중 광주민중항쟁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교도소내의 인권유린을 폭로하며 36일간의 단식농성끝에 휴우증으로 사망했다.

정국은 더욱 처참해진 물결로 극한 투쟁을 요구했다. 노동운동을 죄악시하던 5공화국치하 84년 11월 30일 민경교통(현 동명택시)의 박종만 씨의 분신은 전두환 정권과 자본의 폭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불꽃을 올렸다. 박영진(신흥정밀)씨는 부당해고, 강제전업, 철야폐지에 맞서다 폭력경찰의 침탈속에서 산화했으며 운수노동자들의 분신, 음독 자살 또한 계속 이어지 실질적인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6월 항쟁은 두 젊은이의 혈흔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항쟁」이었다. 서울대 박종철열사의 고문살인 사건이 밝혀지고, 6월 9일 연세대 이한열열사가 뒷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사건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어 학생대중과 시민들을 투쟁의 대오로 이끌어 내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노태우정권, 6공화국이 들어선 뒤에도 폭압은 역시 멈추지 않았다. 서울대 조성만열사가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를 외치며 명동성당에서 할복, 투신 자살 하는가 하면 이철규, 이내창 열사가 의문의 변사체로 수원지에, 비금도에 떠올랐다.

맺음말

위에서 기술한 분신, 투신, 의문사 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86년 8월 12일, 이소선 여사등 변혁 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 10가구가 모여 만든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가 현재에는 70여분 유족들의 모임으로 바뀐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5월 4일, 유가협은 연세대 침탈에 맞서 자신의 동맥을 절단한 김경숙열사를 딛고 찾아온 민주화의 봄은 다시군부독재에 의해 짓밟히게 되었고,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나면서 2천여명의 열사가 이땅에 피어 올랐다. 광주민중항쟁의 이름없는 열사들이 흘린 피는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의 참맛을 한반도 곳곳에 울려퍼지게 했고, 이땅에 미국의 손길이 얼마만큼 뿌리깊게 박혀있는 지를 깨닫게 했다.

피를 머금고 출발한 5공화국에 대한 항거의 불길은 광주민중항쟁의 새로운 시작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80년 6월 10일 김종태 열사가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몸부림—분신투쟁—속에서 사망했고, 광주민중항쟁 당시의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가 85년, 학원안정법반대를 외치며 분신한 홍기일, 송영광 두명의 노동자와 학생은 전방입소 교육, 학원안정법, 학도 호국단등 군사주의적 문화, 정권 유지 악법들에 대한 고민과 학문, 사상 자유 쟁취의 단계를 넘어 보다 강력한 정치 투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반미투쟁의 불꽃」이라 불리우는 서울대 김세진, 이재호, 이동수 3인의 열사가 분신으로 전골옥상에서, 교정에서 「양키용병교육 전방입소 반대」 「양키 고 홈」을 외치며 몸을 불살랐다. 3인의 연이은 분신항거는 당시 「회색인」이라 스스로를 부르던 대학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음은 물론이며, 「반미」는 구호에서 벗어난 실천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 때 기술한 분신, 투신, 의문사 하신 분들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지난 86년 8월 12일, 이소선 여사등 변혁 운동에 몸을 바치신 분들의 유족 10가구가 모여 만든 「민주화 운동 유가족 협의회」가 현재에는 70여분 유족들의 모임으로 바뀐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5월 4일, 유가협은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은이들의 죽음은 우리의 손실」이라는 요지의 회견문을 낭독하였다. 그렇다. 함께 서서 투쟁하던 학생들의 죽음은 항거의 가장 극한 방식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이는 분명 변혁 진영의 손실이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피끓는 외치로 살아 자신의 전선에서 각자 싸우지 못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열사들의 뜻을 이어가지 못 할 뿐더러, 현재와 같은 공안통치, 폭압통치를 연장시키게 될 것이다. 살아서 싸우는 외치로 열사를 만드는 통치구조를 바꾸어 내는 용기가 절실한 때이다.

이 정 우
〈사회과학·무역4〉

전태일열사, 낭만적 운동관 일거에 불살라

유가협 "젊은이들 죽음은 우리의 손실"

햇 글

■사회민주주의 연구1(까갈리츠끼외 지음)

흔히 제3의 이념으로 평가되어지는 사민주의논리에 대하여 서구유럽에서의 역할과 각 계급에 미치는 영향들을 잘 분석해 놓고 있다.

이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베른슈타인의 마르크스주의 비판에서 출발하는 수정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고 둘째는, 까갈리츠끼의 사민주의개량에 대한 논문들을 수록하고, 세째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이후 사민주의와 공산주의의 연합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한에 있어서 사민주의외수용여부에 대해 객관적 기준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새물결펴냄 8천5백원〉

■중국근현대철학사(양재의 옮김)

이제까지 우리에게 알려져 왔던 중국사나 중국사상은 무척 편협한 지배이데올로기에 써여 진정한 평가가 내려지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이책은 집필되었다.

아편전쟁에서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한 중국근대사는 여러가지 혼란과 사회적 변동속에 민중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간다. 이책의 저자는 그간 왜곡되어 왔던, 또한 금기시되어 왔던 중국의 근현대사 부분을 다분히 민중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중국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책일 것이다.

〈일월서각펴냄 5천원〉

■한국경제의 발자취(민성구 지음)

「우리사회를 민족자주의 관점에서 체계있고, 민중에 맞게 설명한다」 이것은 대동편집부에서 「통일로 가는 우리현대사」라는 출판물 시리즈 기획의도이다.

여기에 맞추어 세번째 시리즈 「한국경제의 발자취」를 출간하였다.

이책은 철저히 「민족자립경제수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술되고 있다.

총 6장으로 짜여져 있으며, 그 내용은 미국이 미친 경제영향, 정권별로 본 한국경제, 경제성장의 실상, 매판자본과 노동계급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완전한 자립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동펴냄 3천2백원〉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편)

전대협이 제5기가 된 것을 기념하며 그간의 전대협과 앞으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위해 출간된 책이다.

87년 6월항쟁을 통해 탄생하게된 전대협조직과 6·10, 8·15등의 투쟁약사와 전대협의 위상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전대협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또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전대협 위상지도의 역할도 할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돌베개펴냄 4천3백원〉

민주대연합

소금상자

민주화에 대하여 이해와 요구를 같이하는 모든 민주진영의 총연합을 민주대연합이라 한다.

모든 권력쟁취 투쟁의 과정에서는 권력을 넘겨받는 이행기관이 존재하는데 민주대연합은 권력재편의 과정에서 이행기관의 지위를 갖게 된다. 여러시기마다 이러한 권력이행기관은 다양한 형태들로 나타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체를 들 수 있다.

공안통치 폭력통치로 현시국을 더욱 긴장시키는 몰지각한 정권에 맞서, 4천만 국민들의 모든 정치경제적 이해와 요구를 책임있게 담아낼 수 있는 신뢰있는 정치세력은 민주대연합이다. 이는 각층의 민주세력들을 총결집시켜 92, 93년에 이어질 남한의 권력재편기에 권력이행기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생활속에서

최루탄

1871년독일의 화학자 칼 그레베는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는 흰색 결정을 합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른바 「최루탄의 원조」라고 불리우는 이 물질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프랑스에서 시위진압용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최루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부터였다. 염화 보닐, 클로핀 등의 독가스를 사용하면서 최초의 가스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 기간 중에 합성된 최루성분 가운데 유명한 것이 CN 이다.

CN은 눈의 각막에 피해를 주는 강한 최루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인데, 높은 농도가 인체에 투입되면 시력을 잃게 하는 결막염에 걸릴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 CN은 1960년대까지 공권력에 의해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영국에서 시위군중이 최루가스로 인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CN에 접한 노출된 이들에게 CN에 대한 자체 면역이 생겨나 사용량을 계속 늘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고 국가는 새로운 최루성 물질을 요구했다.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현재 우리들의 눈과 목으로 파고들며 눈물과 기침을 요구하는 CS인 것이다.

CS는 5%정도의 실리카 에어로졸과 함께 쓰이는 결정성 분말인데, 피부, 점막, 특히 눈에 큰 영향을 준다. CS는 2차 대전 때 영국에서 개발, 실용화 됐으며 사이프러스 소요 사태때 대량으로 투입되어 그 위력을 과시했다. CS는 0.005㎎의 아주 작은 양으로도 눈에 극심한 고통을 주며 최대 허용치는 0.05㎎이다. CS는 특히 노약자나 임신부, 폐질환자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은 아주 위험하다. CS의 독성효과는 짧으면서도 강한데 안구가 타는 느낌, 눈꺼풀 경련, 재채기, 흉부압박감, 구토등을 동반할 수 있고 특히 피부가 땀으로 젖어 있을 때 그재해가 심하다. 이때 붉은 반점이 발생하면 24시간 이상이 경과되어야만 없어진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4종의 최루탄(직격탄, 사과탄, 지랄탄통)도 이 CS분말을 주로 하여 만들어 진다. 그러나 그밖의 다른 화학첨가물은 일반 화학전공자들도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루탄의 화학적 독성과 위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들은 막상 거리에 서서 또 다른 최루탄의 「물리적 위력」을 접한다. 수류탄, 일명 「사과탄」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폭발시 피폭자에게 화상이나 파편에 의한 부상을 자주 입힌다. 더구나 사과탄의 미세한 파편은 X—레이 에도 나타나지 않아, 몸 속에 그대로 지닌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최루탄가스를 자주 쏘일 경우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하며, 남성의 경우에는 정자파괴가,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불능이 초래되기도 한다.

최루탄은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루탄 때문에 곤충류가 사라지면 곤충을 잡아 먹는 조류와의 먹이사슬이 끊이기 때문이다. 또한 87년 서울대에서는 80년생 소나무가 영양제를 맞기도 했다. 최루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또한 가히 놀라울 지경이다. 정권은 늘어나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진압할 목적으로 최루탄 사용량을 매년 늘려왔다. 지난 80~85년의 5년간 정부가 사용한 최루탄 구입비는 약 1백억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들이 사용한 최루탄은 5월 11일 현재 30억원 어치에 달한다한다. 이 짧되면 85년이후 91년까지의 최루탄 구입비는 가히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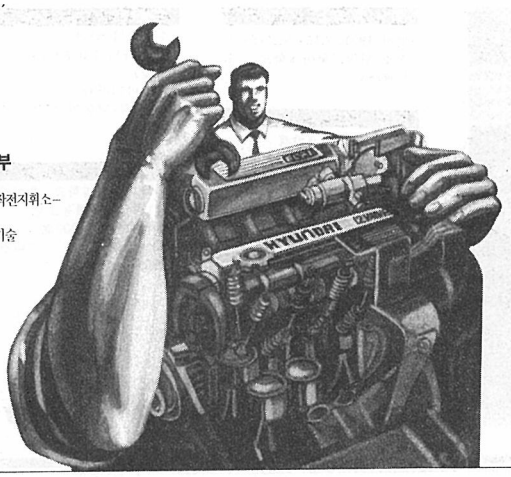
공해방지법에도 없는 최루탄으로 인한 인체에의 영향, 환경파괴, 경제적 손실의 방지는 최루탄으로 조금이라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정권이 사리져 「최루탄이 필요없는 사회」에서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최루탄이 터지고 있어, 여기에 몇가지 오염방지법을 소개한다. ①마스크에 치약, 비누등을 묻혀 사용한다. ②계란에 사이다를 섞어 얼굴에 바르면 효과적이다. ③일단 최루가스에 노출되면 바람부는 쪽으로 얼굴을 돌린다. 이때 눈을 비비면 각막에 손상을 줄 수도 있다.

〈외대환경보호모임 알섬초동〉

첨단 엔진의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

자동차 한국의 내일을 이끌어갑니다.



첨 단 자동차 기술의 메카 —
현대 마북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자동차의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이끄는 작전지휘소—
현대 마북리 연구소 엔진시험부.
이곳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 불리는 첨단 기술
개발 경쟁과 선진국의 핵심 기술 보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도전과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첨단 기술 정보의 수집과 분석, 수백번의 시험
과정을 거으며 선진 자동차기술의 거대한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
바로 이들의 노력이 자동차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무대로 당당히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제 세계로, 미래로 —
첨단 기술의 벽을 넘는다

엔진시험부는 엔진 개발 프로젝트를 연구하는
엔진 성능 시험 부문과 연소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배기 부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곳은 엔진 설계형상의 개선 방안, 타경쟁 엔진과
성능 비교 테스트, 실차 탑재 전 최적성 비교,
엔진의 최적화 및 내구성 강화 테스트 등
최종 사양 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업무를
총괄합니다. 때로는 샘플 엔진에,
때로는 선진기술의 벽에 부딪치며 하나, 둘…
자동차 한국의 꿈을 실천해가는 사람들—

이들의 노력이 오늘을 사는 치열한 정신이자
내일의 첨단 자동차기술을 리드해갈 힘입니다.

내 일의 주인공은 —
바로, 그대가 아닌가

인간 의식과 생활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쾌락과 유행만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기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실패의 허물이
용납된다는 것—젊은 그대들만의 특권입니다.
세계 첨단 자동차 기술을 리드하며 지구촌 곳곳에
한국인의 자부심을 펼쳐간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 바로, 젊은 그대들입니다.

마음을 나누며, 미래를 꿈꾸며
현대자동차가 밝은 내일을 추구해갑니다.

HYUNDAI 現代自動車

오늘의 정신으로 내일에 도전한다 ③

그렇다면, 무엇을 얻을 것인가

5월투쟁의 진전을 위한 전술적 대안

지난 5월18일 성남에서 열린 「제2차 국민대회」모습. (이재원 기자)

본질유지 내각개편안, 정권의도 간파해야

「대통령 신임투표」등 현실적 대안제시 필요

89년 봄부터 강화된 지배세력의 탄압으로 인하여 정국은 냉각되고, 민중운동은 계속적인 수세에 처해 있었는데, 강경대군 살인사건 이후 정세는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정권의 그간의 반민중적 정책에 대한 분노의 표현에 다름 아닌 바, 이러한 분노에 봉착하여 천미파쇼정권은 여러가지의 무마책을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무마책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무마책에 안주하지 않고 투쟁의 열기를 가열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을 기본적인 과제로 한다.

정권의 대응과 이것이 민중운동에 미칠 영향

5·18을 기점으로 대중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지배세력은, 그 직후 그동안 고민해왔던 대응안을 가시화시킬 것으로 예긴되는데, 그 대안이란 노태우의 개편이 될 것이며, 이는 그동안 노정권이 겉으로는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암중모색해왔던 것이다. 즉 지배세력은 민중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를 일단은 관망하는 가운데, 예상외의 향거가 지속되자 겉으로는 「강경」을 부르짖는 한편 물밑으로는 내각의 개편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내각개편은 실제 노태우의 권력말기증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가히 달가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각의 개편이란 그야말로 권력의 본질은 불변한 채 인물만 바꾸는 것, 즉 파쇼적 통치에는 하등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부분적 무마책이라는 점에서, 지배세력의 경우 이러한 변화를 민중의 항거진압과 맞바꿀 용의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들은 이 이상의 양보는 내각의 사퇴로 뒤덮으면서 무마하려 할 것이다. 즉 초기에 쟁점이 되었던 백골단 해체의 문제, 학살 관련책임자의 처벌 등의 요구는 내각의 사퇴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은폐하면서, 약간의 가시적 조치로서 양심수 석방의 문제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5월정세의 특징

내각사퇴라는 지배세력의 양보는 야당을 결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민당의 경우 노태우의 경질을 애초부터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면 직당히 타협하고, 향후의 정국을 광역의회 선거판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여론 역시 내각의 재편이후에는 현시기 투쟁에 대한 보다 강도높은 비판을 가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대중이 동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5월투쟁의 추동력은 「인권문제」라는 약간은 정서적인 문제가 주된 것이었기 때문에, 내각이 재편될 경우 대중의 동요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즉 구조적인 불만이 대중투쟁의 근저에 깔려 있기는 하었으나, 그것이 터져나오는 계기는 「한 학생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에 대한 즉자적인 분노」였다는 점에서 5월투쟁의 폭발성과 한계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5월투쟁이 87년 6월투쟁과 다른 특징은 야당의 결정적인 동요에도 불구하고 투쟁이 가열차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투쟁의 동력은 조직대중에 의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즉 「인권문제」를 계기로 한 폭발이라는 점에서 비록 그 열기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동시에 조직대중이 주된 동력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방침, 전술적 대안만 명확하면 투쟁이 지속적일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투쟁의 강화를 위한 대안

그러면 투쟁의 파고가 쉽게 가라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대안은 「한 학생의 죽음에 대한 분노」를 전계급적 분노로, 구조적인 분노로 전화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즉 강경대군의 죽음에 대한 규탄만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노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죽음을 불러일으킨 지배세력이 각 계급에게는 어떠한 또다른 죽음을 강요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폭로되어,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문제로 각계급이 정권의 반민중성, 폭력성을 인식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자는 노동운동탄압과 노동악법, 그리고 박창수 열사의 의문사 등을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를 강경대군의 살인으로 상징되는 정권의 폭력성과 연결시켜, 노동대중에게 정권에 대한 생생한 분노를 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제대로 조직되려면 당연히 투쟁의 구심체가 존재하여야 하는 바, 따라서 현시기의 구심체인 「공안통치 종식과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민중진영의 요구조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위슬로건으로 「노퇴진」이 제기되고, 부분적인 요구로서 「양심수 석방, 백골단 해체」등이 잠히있으나, 부분적 요구에 대한 지속적인 강조는 없는 편이다. 이러한 식으로 투쟁이 전개되다 보니 노퇴진 이외의 모든 슬로건은 유야무야되어 버리고, 노퇴진은 민중진영의 역량 한계로 말미암아 노내각의 사퇴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중투쟁의 결과물이 단지 노내각의 사퇴만으로 귀결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따라서 민중진영은 상위슬로건으로 「노퇴진요구」를 계속 부각시키더라도, 쟁취목표로서 「백골단 해체, 관련책임자 처벌」등의 구체적인 요구를 확실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노퇴진이란 상위슬로건만으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정치적 대안이라고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요구가 아닌 정치권력의 편제와 관련된 요구이면서도 퇴진보다는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제기할 필요도 존재하며, 이런 점에서 「대통령 신임투표」등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도 있겠다. 물론 신임투표는 퇴진보다는 낮은 차원의 요구라는 점에서 민중진영 내부에서의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권력에 대한 문제로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켜낼 수 있다는 점, 또한 그것의 실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볼 때,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 전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위에서 제기한 다양한 전술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조직적 구심이 없이는 아무 힘이 없다. 따라서 「범국민대책회의」에서의 합의를 기본으로, 일치단결된 투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

최 동 규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연구원〉

WHNS, 한반도 전쟁예비 음모

한미전시국지원협정을 진단한다

미국이 매듭을 짓자고 몹시 서두르는 「전시접수국지원협정」(WHNS)이라는 생소한 한-미군사관련협약이 올해 안에는 체결될 모양이다.

이 협정은 한반도에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져 미국의 증원군이 파견돼 배치될 때 이들에게 제공할 군수, 병참지원의 조건과 비용부담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전쟁과 같은 극한상황을 전제하는 만큼 이런 협정에서 예상하는 일반원인 후방 병참지원은 도로·항만·공항·철도를 포함한 모든 운송망과 운송수단의 이용은 물론 숙영·급식·의료·통신이나 함정·항공기 정비등의 서비스제공, 또 이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 노무지원까지 제공하는 그야말로 사회간접시설을 포괄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다.

국방부가 미국과 가서명한 내용중 문제시 될 수 있는 불평등한 내용으로는, 첫째, 예견할 수 없는 전쟁상황에 따른 주한미군이외의 증원군의 탄약과 수송 및 시설지원의 비용을 한국쪽이 부담한다는 것과 둘째, 협정이 규정하는 준비태세를 시험적으로 점증해 보기위해 2년에 한번씩 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완전히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의 대미협상태도를 보나 걸프전이후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포함한 전세계적 발언권이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있고, 특히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요구가 거세이지고 있으며, 며칠전 외무부장관도 진행되는 등 한반도 주변의 긴장완화 기운이 확산되고 있는데 굳이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추가해 군사지원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은 올해초 미국의 국방연례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소련의 세계적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으나 소련은 여전히 엄청난 전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략을 현대화하고 있는데다 한반도와 중동은 세계5대 분쟁가능지역 가운데 가장 분쟁위험이 높은 「본격적인 지역분쟁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국은 여전히 강력한 억지력과 실질적 군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전시접수국 지원협정」이 올해안 체결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 안보전략에 입각해 한반도에서의 미군의 거점기지를 여전히 중요시하고 있으나 이에 따르는 방위자원의 절약을 위해 한·미 전시접수국지원협정을 체결해 한국과의 군수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려는 의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수있듯이, 미국이 대한반도정책, 즉 대소전진기지로서의 병참기지화등의 기본적인 전략은 변함없이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 미국의 이해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해군력의 감축은 없이, 해외지상군의 주둔에 따르는 엄청난 비용을 주둔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다.

국제적인 탈냉전이후 세계의 전반적인 추세가 평화군축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이때에 「전쟁가능성 운운」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냉전논리가 여전히 기세를 부리고 있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나아가 민족의 평화적 통일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의 평화정착을 원한다면 당연히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봉쇄하고 한반도를 비핵지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미군을 2천년대에도 계속적으로 주둔시키겠다느니,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결국 한반도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이다. 오히려 걸프전 이후 직극적인 군사개입 노선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군사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잠재적 군사력 위협」을 들먹이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국군 현대화계획을 계속 추구하여 한반도에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한 「힘의 우위 정책」만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기조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군축운동은 통일운동과 불가분의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일을 촉진시키고 평화환경을 조성하며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다. 불가침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을 막는 무제한적인 군비경쟁을 중식시키고 남북간의 상호대결과 불신의 벽을 허물어 통일의 기초를 다져야 할 것이다.

정 수 진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1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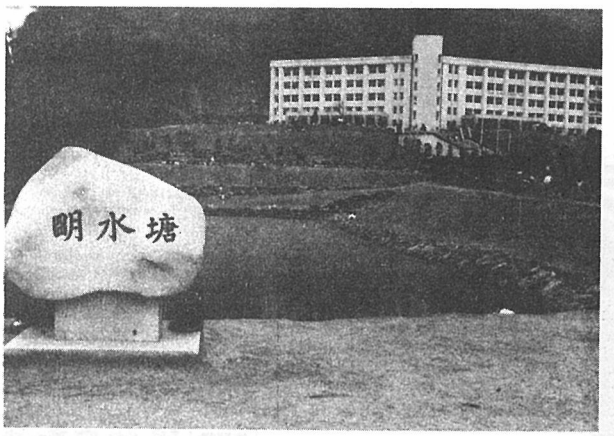
미국

방위비 일방적 강요·한반도 군사기지의 안정적 확보

지배이익 관철 위한 한반도 힘의 우위정책 반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회 하계 어학 연수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배움터 대학생활협동조합은 제3회 하계 어학 연수원 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일시 및 장소
·일시:1991. 7.15~8.16(5주)
·장소: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배움터

대상
·본교및 타교 재학생

개설과목
·영어:회화, 듣기
·일어:회화, 듣기
·기타:운전, TOEFL특강실시

특징
·회화, 듣기 집중 과정

등록비
·수강료:10만원
·기숙사비:9만원(식비포함:주5일)
·운영비:3천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대학생활 협동조합 (어문학관 202호, 전화 0335-30-4153, 구내전화 4153)

원서교부및 접수
·기간:1991. 5.13~6.14
·장소: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배움터 대학생활 협동조합(어문학관 202호, 전화 0035-30-4153, 구내전화 4153)
※접수시 증명사진 2매와 수강료 지참

타교 학생 등록처
·외대 용인 우체국 104091-0008605(예금주:연수부)

애국외대 통일 왕산
대·학·생·활·협·동·조·합

●11주기 맞는 광주민중항쟁 5·18문화제 취재

민주혼을 부르는「오월의 노래」

〈사진:전대신문사〉

해마다 5월이면 이 땅은 얼병을 앓는다. 그 중에서도 아픔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는 곳,「5월의 노래」가 가슴으로 불리워지고「광주 출정가」가 이런 꼬마들에게도 귀에 설지 않으며, 풍물패의 흥겨운 가락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라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시는 할아버지를 만난 수 있는 곳…, 5·18 11주기를 맞는 광주를 찾아 광주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5·18 11주기 문화행사들을 둘러 보았다.

광주에서의 5·18 11주기는 전남대병원앞 거리를 가득 메운 3만여명에 가까운 광주시민(농민·노동자포함)·학생들의 밤이 깊도록 그 칠줄 모르는 노랫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17일(금)「광주민중항쟁 정신계승을 위한 광주항쟁 제11주기 전야제」가 시작되기 한 두 시간 전부터 전남대병원앞 거리는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전남대 문화선봉대「전투적 율동대」학우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시민들이 함께 노래와 춤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광주·전남지역 농민회 회원들이 깃발을 앞세우고 모이기 시작했고, 대학생은 물론 중·고등학생·국민학생들까지 손뼉을 치며 달려와서 자리를 잡았다.

놀이패「신명」의 길놀이로부터 시작된 전야제는 간단한 결의대회를 거쳐 문화공연으로 이어졌다.

먼저 광주 민중문화운동 협의회에서 준비한 집체극「나의 가슴에 불을 붙고」가 공연되었다. 이 집체극은 고(故) 강경대열사의 죽음과 잇따른 열사들의 분신, 수서비리, 폐놀사건, 물가인상, 집가폭등, 정부의 노동운동탄압, 농민말살정책등의 내용으로 일련의 현시국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연기와 노래·풍물과 춤이 조화되고 무대뒤 화면에는 관련 내용의 슬라이드가 비춰져 극의 효과를 증대시켰다.

열사들의 죽음과 분신장면이 재현될 때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노태우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광주시민들의 강한 결집력은 19일(일) 금남로에 위치한 카톨릭회관 앞에서 열린「5·18 광주민중항쟁 11주기 추모 거리굿」에서 또한번 증명된다. 이 거리굿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주최한 것으로 노래패「소리」와 김원중씨, 전교조 전남지구 교사들의 노래공연으로 엮어졌다.

이 날 거리굿에서 불리워진 노래는 일정한 주제아래 묶이지 않아 산만한 감도 없지 않았으나, 어느 노래 하나 지금의 암울한 5월에 어울리지 않는 노래가 없었기에 이 시대의 총체적 아픔을 말해주는 듯했다. 공연 도중 고(故) 강경대 열사의 운구가 도청노제를 지내기 위해 금남로에 들어서면서 전경과 대치하자, 공연은 급히 마무리 되었고 시민들은 부르던 노래를 멈추고 운구행렬에 합세했다.

한편 이외에도 망월동 5·18묘역에서는 17일(금)부터 광주·전남 미술인 공동체에서 오월전「오월에 본 미국」을 개최했다. 18일(토) 추모식이 열리는 묘역 뒤쪽에는 걸개그림「오월전사도」가 전시되었고, 묘역주변으로 전시된 9점의 조소작품과 19점의 회화작품은 지나가는 참배객의 발걸음을 한참 동안 멈추게 했다.

조소작품은 조소분과「오월조각패」에서 공동창작한 것으로 80년 5·18당시 상황을 담은 것이 대부분이었다. 김경주(광주·전남 미술인 공동체 회원)씨는『최근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80년 광주민중항쟁은 그 배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회화 작품속에 공안통치의 배후세력인 미국의 힘모습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부각시켰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림 앞에 멈춰선 참배객들은 그림속의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기도 했다. 이제까지 한정된 공간에서의 전시회와는 달리 열린 공간에서의 전시는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내용도 망월동을 찾는 참배객들에게는 더 가슴 절절히 전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광주에서 열리는 5·18문화행사는 아직 절반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거리굿은 26일(일)까지 매일 계속될 예정이며, 오월전도 23일(목)까지 망월동 묘역에서 계획되어 있다. 22일(수)부터 시작되는「제4회 민족극 한마당」과 23일(목)의「5월 여성제」도 외미있는 행사로 빌써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광주 5·18문화행사는 내용면이나 구성면에서 특이하다거나 돋보이는 점은 그다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행사들이 훌륭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광주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전야제 행사의 경우에는 다음 날 도청앞 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뤄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은 현재의 상황을 다시금 자각하고, 분노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민들은 노래를 잘 부르진 못하지만 가슴으로 뜨겁게 불렀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래는 살아있고 힘이 있었다. 그 속에는 분노·슬픔과 함께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는 강한 용기가 있기 때문이다.

검게 그을린 주름진 얼굴에 눈물을 글썽이며「5월의 노래」를 부르시던 할아버지, 망월동 묘역「공수부대의 만행」이 새겨진 조소작품 앞에서 한숨쉬며 떠날줄을 모르시던 할머니의 가슴 속에 더 이상 5월은 슬픔과 분노의 계절일 수 없다. 노래부르고 춤추며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에서 해방세상의 그 날이 멀지만은 않음을 느끼게 된다.

민주화를 부르짖다 쓰러져간 5월영령들의 넋이 고이 잠들 수 있는 그날, 참 해방의 그날에 금남로에서, 도청앞 광장에서 멋지게 해방춤을 추는 광주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황효순 기자〉

시민들의 적극참여로 이뤄진 훌륭한 행사

「기념제」틀 벗고 투쟁의 동력으로 작용

집체극 공연후에는 전남지역 대학생노래패 연합에서「우리 사랑 분노되어 가자./ 도청으로」라는 제목의 노래공연을 펼쳤다. 최근에 발표된 노래 중에서도 어려운 민중들의 삶을 그린 노래를 주로 불렀는데, 슬라이드 화면과 함께 지하방에 갇혀 질식해 죽은 두 어린이에 관한 노래가 들려올 때 시민들은 모두 안타까운 심정을 금치 못했다.

집체극과 노래패 공연이 3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으나 시민들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시종일관 자리를 지키며 박수를 보내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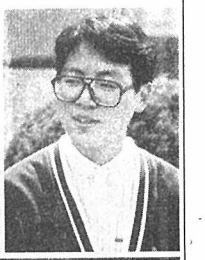
『광주 시민들이 적집 참여하는

우리말의 쓰임새 (205)시계전

〈강물이 어찌 오손도손 흐르기만 하랴/큰 물이 작은 물을 이끌고/ 들판과 골짜기를 사이좋게 흐르기만 하랴/어떤 땐 서로 치고 받고/또 어떤 땐 작은 물이 큰 물을 덮치면서/밀면서 밀리면서 쫓으면서 쫓기면서 때리고 맞으면서/시계전도 지나고 다리밑도 지나는/강물이 어찌 말없이 흐르기만 하랴〉(신경림의「강물이 되고 벌이 되고 꽃이 되면서」중에서)

「시계전」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곡식 또는 시세를 가리키는「시계」라는 말과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를 가리키는「-전」이 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즉 시장에서 곡식을 파는 노점을 뜻한다. 곡식을 마소에 싣고 다니며 파는 사람을 시겟잠수, 시장으로 가는 곡식을 실은 짐바리를 시겟바리라 부르기도 한다.

"많은 고민속에서 결정된 가요제가 왕산인의 하나됨을 위한 자리이길…"



제7회 FBS 가요제를 준비하고 있는 용인 교육방송국 실무국장 전기배(자연·물리3)군을 만나

「노래-모두가 함께 공유할, 역사가 흐를수록 더욱더 불리워질 우리의 노래를 찾습니다」.

용인캠퍼스 교육 방송국(이하 용인 FBS)은 개국 10주년을 맞아 제7회 FBS가요제를 개최한다. 잇따른 열사들의 분신과 어려운 시국에서 이번 FBS가요제를 과감한 자기혁신의 과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용인 FBS 실무국장 전기배(자연·물리3)군을 만나 보았다.

엄중한 시국에서 가요제를 해야 할 것인지 많은 논란이 있었을 FBS가요제 강행에 대해 전군은『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정기행사여서 4월부터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계속된 열사들의 죽음속에서 가요제를 해야 할 것인지 무기한 연기해야 할것인지 자체내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단순히 개인적이고 즐겨 보자는 식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잘못 인식되어 있던 가요제에 대해 생각을 깨쳐 나가는 자리로서 건강한 대학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데 기여를 해야 한다라는 결론속에 강행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전군의 얼굴은 그간 논의의 어려움을 증명하듯 자못 진지한 표정이었다.

『일반인의 호기심을 이용, 교묘한 상술로서 건전한 대학의 문화를 상업화시키는 기존 중앙방송국의「대학 가요제」,「강변 가요제」등과 저희 가요제는 질적으로 틀립니다. 대학인의 건전한 의식과 건강한 생활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노래를 알리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FBS가요제의 근본 취지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라며 가요제의 취지와 목적을 말하는 전군은『그래서 민중가요를 포함하여 다양한 내용의 젊음이 살아 쉬는 노래로 많이 참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나 아직까지도 천편일률적인 사랑, 이별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번 행사에 대한 인식이 퍼무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물며 상금을 중요시 여기는 학생들도 꽤 됩니다. 상금이 결코 목적이 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라며 학내에 개인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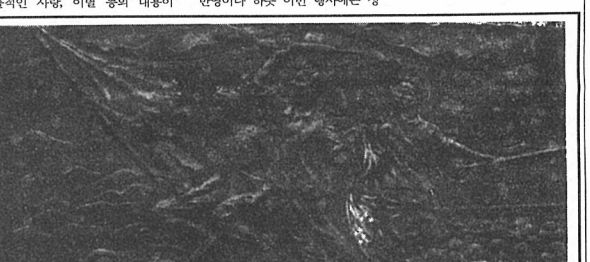
혼히 가요제라고 하면 「초대가수」로 누가 올까라는 궁금함에 입마감 화제에 오르곤 한다. 하여 가요제가 열리는 당일은 대강당이 가득 메워지고 소위「유명인」이라도 오면 참가자들의 열창에 쏟아지는 환호보다도 「일반 대중가수」에게 쏟아지는 환호가 더욱 열광적이다.

이에 대해 전군은『89년에 가수 이문세씨가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도대체 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가요제를 관람하고 어떤 생각으로 들어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지 한 유명 가수만을 빛내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는가라는 회의감도 들었습니다』라며 이번 가요제는 진정 대학문화를 자주적으로 일구기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러한 노력을 반영이나 하듯 이번 행사에는 성남지역 노래운동 단체인「성남노래마을」을 비롯「뜬쇠 사물놀이」등이 초대된다.

특히 입장권 판매 수익금 전액 모두를「입수경 후원사업회」에 성금으로 전하는데 대해 강경대 열사 장례기금으로 할 생각은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전군은『물론 했죠. 하지만 이번 행사가 5천 3백여 왕산인의 하나됨을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입수경 후원사업회」에 성금을 전달할 것을 결정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왕산인들에게 바라는 말에서 전군은『과 친구들을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초대가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닌 건강한 대학문화를 봄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자리라 여겨 주셨으면 합니다. 상업과 자본에 찌들어 버린 대학문화가 아닌 우리 스스로 대학문화를 만들고 꾸려 낸다는 생각으로 말입니다』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에서처럼 이제 자본과 상업성에 의존한 소비·향락문화를 스스로 거부하고 스스로 세우려는 적극적 자세가 FBS 가요제를 비롯 모든 학내 문화행사에 요구된다 하겠다.

〈김연희 기자〉



지상 전람회

"오월에서 통일로"

—5월17일(금)부터 광주 망월동 5·18묘역에서「광주·전남 미술인 공동체」주최로 열린 오월전「오월에 본 미국」중의 한 조소작품

1년간 지속되는 영어연수?

"같은 비용으로 해외연수와 1년간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동시에"

해외어학연수는 더욱더 큰 영어공부에의 의욕을 돋구어 줍니다.
그러나 그 열기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칫 추억으로만 남기 쉬운 30일간의 연수 — 추억이 아닌 자기만의 재산으로 만드십시오.
엘림이 30일간의 열기를 365일 연장해 드립니다.

UNI-ELIM CLUB
미국대학 영어연수

신청마감 : 1991년 5월 31일까지
각 대학별로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므로 마감일 전에도 선착순 접수 마감될수 있음
신청방법 : 본원 소정양식의 참가신청서

지금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549-3411~3

살아있는 영어 UNI-ELIM CLUB
(주)엘림교육연구개발원의 해외연수단에 가입하시면 1개월의 미국연수를 다녀오실분과 아니라 1년동안 해외의 영어 membership 써클리즈이 자 ELIM CLUB의 회원자격이 자동으로 부여되어 다양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참석 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미 국 대 학 영 어 연 수

■ 학 교 명
• Evergreen State College.
• Florida International Univ.
• California State Univ.
• Long Island Univ.

■ 명승지문화여행
• 로스엔젤레스 • 샌프란시스코 • 뉴욕
• 라스베가스(그랜드 캐년) • 시애틀
• 워싱톤 D.C • 시카고 • 뱅쿠버
• 버플로(나이아가라 폭포) • 하와이
(주말및연수후1주일의 관광은 option 일정)

(주)엘림교육연구개발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 — 18 로얄빌딩 4층

UNI-ELIM CLUB 회원 특전

UNI-ELIM CLUB이란 연수전, 후 1 년간 정규교육프로그램과 영어습득을 기본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Activity(외국인과의 meeting, 세미나, party, game, 등산, 레크레이션…)를 통해 문법, 독해, 어휘, 청취 및 회화등 영어에 관한 모든것을 즐겁고 자연스럽게 마스터 할 수 있는 독특한 회원제도입니다.

회원들은 본원의 겨주발행 회원지(학습지로, 각종정보, 교양등의 내용)를 무료 구독하게 되며, 유학, 취직, 아르바이트, 정보제공 및 상담, LOUNGE, LAB실 자유이용, Shuttle bus운행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대발전 그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동문·학부모를 한 두리에 대학발전의 밑거름

단지 돈을 모금하는 수준에서 못벗어나
후원회 사업 통한 동문·학부모 참여 시급

지난 4월30일(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후원회」발기인 대회 광경

대학의 민주적 발전에 있어 그 학교의 출신선배인 동문, 대학내 구성원및 대학에 연관을 맺고 있는 학부모들의 역할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대학의 제정확보에 있어 타학교의 경우 동문·학부모·지역인사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후원사업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으며 민주총장선출, 교과과정개편등 민족대학을 건설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본교 역시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후원회(이하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50억 기금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동문 또는 학부모들이 대학발전에 있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례제시를 통해 대학발전의 한 주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 후원사업의 현황

본교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후원회가 지난 4월30일(화), 창립총회를 기점으로 모색기를 넘어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6월, 기획조정처에서 설문안을 마련, 「대학발전후원회(가칭)」를 상정하고 교수·직원을 대상으로 의견개진작업을 실시했으며 12월말 13명의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발전후원회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토의, 지난달 30일(화)에 후원회가 발족되었다.

현재 후원회 사업의 일차적 목표는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에 있다. 세계적 규모의 국제지역학 연구센터로 만들 방침인 「외국학 종합연구센터」에 대해 후원회 사무국장인 안영호(마인어과)교수는 다음 3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산학협동의 산실이다. 이것은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세계각국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국내 산업계에 제공하고 해외파견직원을 연수·교육함으로써 해외 진출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른개발과 학술활동의 활성화이다. 모든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변화를 설명하는 범학제적 이른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외대발전은 물론 국내 사학발전에 기여함이다. 재정적 위기상태에 있는 국내 사학들이 각대학의 특성에 맞추어 국가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한편, 종합센터 건립기금 확보를 위한 모금사업과 건립사업은 이원화하여 추진할 방침으로 연구센터건립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은 총장을 중심으로한 학교자체조직인 「외국학 종합연구센터 건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두사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후원회를 바탕으로 한 기금마련사업에는 학부모, 과별동문회와 총동문회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동문 그리고 관련기업체, 사업에 동의할 수 있는 대사관이나 외국기관들이 중심이 되며 특히 외대를 구성하는 교수및 직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후원회 사업은 이외에도 교수회관 건립, 박물관 건립, 장학사업, 교수및 학생의 연구활동지원등을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5월16일(목)까지 후원회 기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기탁금 총지급액은 1억7천4백3십2만2천원(현금기부금액 1천1백1십2만2천원 포함)으로 교내교수 67명, 교내직원 62명, 교외인사 17명, 동문및 기타 13명, 학생 1명, 과동문회 2명, 모현학사 사생회등 총기탁자는 1백46명인데 이중 지난 3월28일(목)에 함의된 「학원민주화를 위한 함의사항」에 동록금인상률 0.63%에 해당하는 1억1천4백만원가운데 5천만원이 포함돼 있다.

반면에 후원회의 한 관계자가 지적했듯이 기금마련과정중에서 일부 교수·직원·동문들에게 강제력이 부여되고 있는것과 학생신상카드를 중심으로 각학과장이 10명씩 학부모를 추천했다는것은 앞으로 후원회 사업이 단순히 「돈」을 「모금」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건국대의 경우 「건국대학교 발전기금조성을 위한 1차 5개년계획」을 수립, 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1차계획은 동문, 학부모를 중심으로 「발전기금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을 마련, 기반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학과별 동문회가 구성되어 있는 단과대를 중심으로 2백여명을 구성하고 대학원 30명, 특수대학원 1백50명으로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이들에 의해 마련되는 기금으로는 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기금헌납자가 사용목적을 밝힐 경우 그 목적에만 쓰이게 되며 대학당국은 기탁자의 뜻을 대학구내에 기록, 보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서강대는 1986년 1월에 「서강대학교 발전후원회」가 결성되어 동문, 학부모를 중심으로 교육시설의 확충, 장학사업, 교수충원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의 특성상 설립자 예수회원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로 국제예수회 관계기관의 지원과 여러 외국지부기관 그리고 많은 해외 독지가들의 재정적 원조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동문·학부모의 역할

1958년 제1회 졸업생에 의하여 발족된 본교 총동문회는 동문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58년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회칙을 제정하고 이에따라 동문회의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한 본교 동문회는 17대를 거치면서 동문수가 90년 12월 현재 3만2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1965년 5월 「외대동문 장학회」가 발족, 88년 6월 「동문장학기금 5억원」조성계획을 수립, 현재 2억원이 모아진 상태이다. 그러나 장학사업이외에는 뚜렷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88년 4월23일, 「학생운동의 연장선상에 자리잡고 기존의 동문회에 민주라는 정치의식의 결합된 조직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나 자신의 복지보다는 민족과 민중의 운명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라는 취지아래 민주동우회(회장 송영, 작가)가 구성되었으나 뚜렷한 사업추진없이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경희대의 경우 88년 8월, 총민주동우회가 결성되어 선·후배사이의 친밀감을 토대로 한 과·단대 민주동문회를 지부로 구성, 상시적으로 후배들과의 결합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결합력이 89년 국책과목인 국민윤리가 폐지되었을때 교과과정개편투쟁을 공동으로 벌여나갔으며 88년말 서울지역의 민주동문회를 조직하여 「전-이구속처벌을 위한 가두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본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지 않은 상태로 학부모들의 참여도는 매우 낮다.

조선대의 경우 대학의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대학의 민주적 운영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에 「총학부모협의회(이하 학협)」라는 자격으로 대학발전에 참여하고 있다. 학협은 87년 학자부에서 학부모들이 학원에 대한 상황을 인식, 단대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되어 그후 대표자회의를 거쳐 학협이 결성되었는데 88년 4월 대자협이 건설되면서 그 구성단체로써 자리매김되어 대표자회의와 실무간사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 또한 교수·학생과 협의하에 이사진을 개편하였고 89년 등록금책정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예산공개를 요구하였다.

후원회의 발전기금 조성추진계획은 학원의 3주체(교수·학생·직원)와 그와 연관된 동문, 학부모를 한몸음으로 묶어 교육환경개선과 대학발전을 위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동문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동문들 상호간의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모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하여 후배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대학발전에 있어 학부모들의 참가의 폭이 넓혀지도록 이들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김상권 기자〉

보도기획

글싣는 차례

1. 학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학생회
2. 민주적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모색
3. 경영합리화와 직원문제
4. 대학민주화에 기여할 대학원의 역할
5. 대학후원사업의 문제점과 동문·학부모의 참여방법
6. 무능한 재단 다시 태어나야 한다

생활안내

10 학생취업 추천 규정

●「××학과를 전공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3명을 본사로 추천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이러한 내용의 취업추천의뢰서가 각과 또는 학생처로 통보가 오고 있으나 특히 취업문 좁다는 한국사회에서는 의뢰서를 받는다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본교는 「학생취업추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단순히 규정에 불과한 조항이 많은 현실이다.

●규정에 의하면 적용범위에서 추천에 의하여 취업이 결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공채에 응모하는 취업희망자는 본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외부기관(구인처)에서 학교(학생처경우)에 취업추천을 의뢰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며, 각 단과대학이나 각 학교에 적절 추천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추천절차를 살펴보면 학교(학생처경유)에서 외부기관(구인처)의 취업추천 의뢰서를 접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피추천자를 선정하여 총장명의로 추천서를 발급한다. ①특정학과 또는 전공계열을 한정하여 일정 인원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과장이 취업희망자 중에서 일정 인원의 피추천자를 선발하여 인적사항을 학생처장에게 통보한다 ②특정학과 또는 동일계열의 교과를 이수하는 학과(예:영어과, 영어교육과…등)가 서울캠퍼스 주야간과용인캠퍼스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 학과의 홍보를 거쳐 학과장이 피추천자를 선출한다. ③두번째 규정에 의하여 피추천자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생처장 주관하에 순위고사를 실시하여 후보자 중에서 일정 인원을 선정한다. 또한 졸업생및 재학생이 경합된 경우에는 재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각 학과장은 추천후보자를 선정할 경우에 전공, 부전공, 성격, 상벌관계, 적성과 일만 지능등을 참고로 하며 취업기회의 균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인기기관(구인처)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 부업, 전학 및 유학에 관련된 자문을 얻고자 할 경우 학생처내에 설치된 취업지도위원회로 자문을 구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많은 조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추천절차에서 총장 명의로 추천서를 발급받는 사례가 드물고 순위고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성적과 나이이외에는 추천에 참고할 사항은 거의 없다. 또한 학생처내에 취업지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현실이다.

⑨인문계열 취업현황

사다리

「비인기학과」멍에 극복해야

본교 인문계열 인문대학(사학·철학과)의 취업률이 전체취업률 68.3%, 순수취업률 31.7%로 전년(전체취업률 43.8%, 순수취업률 16.7%)대비 34.5%(전·취), 15.0%(순·취)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본교 전체취업률 70.7%, 순수취업률 50.2%에 비해 순수취업률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현재 인문계중 순수인문학과에 대한 사원모집을 기피하고 있는 추세라 작년의 경우 20%선 이하에 머물던 순수취업률이 올해는 30%를 웃돌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인문대 학과의 취업률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순수취업자대 진학및 유학자의 비율이 50:50내지는 40:60인 것으로 볼때, 기업의 취업추천의뢰가 취약한 학과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택하기 보다는 대학원 진학 등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각과별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철학과(91년82월 졸업생수 30명)가 전체취업률 70%(순수취업률 36.6%)있고, 사학과(30명)의 경우 전체취업률 66.6%(순수취업률 30%)이다. 순수취업자의 취업동향은 대부분이 일반기업체를 택했고 교직에 소수가 언론출판계에 약간명이 진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분명 올해 본교의 취업률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였고, 인무계열학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인문계열속에서도 그 학문적 경향이 짙은 본교 인문대학의 경우 현재 취업률이 상승했다하여 이러한 흐름이 안정적을 지속되리라는 예측은 어렵다.

향후 5년간 20여만명의 고급산업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는 전문대 이상의 고급산업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학과 신설및 증원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의 선호도와 산업인력수급실태조사 결과 등을 타진해 보았을 때 94년까지는 자연계로 그 비중이 올아갈 것은 기정사실이다.

전국 취업현황을 계열별로 분석해보면, 의·약, 공학, 경상, 법경계열(정치외교학과제외)의 취업률은 평균 60%를 상회하는 반면, 일부 어문학과를 제외한 인문계열학과 다수(사회, 역사, 철학등)와 자연계열 일부학과(생물, 수학, 지구과학 등)그리고 사범계열의 취업률은 4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듯 대학입학에서 부터 이후 진로결정에 까지 「인기학과」「비인기학과」가 구분되어지는 이러한 취업불균형 현상은 기업들에 의해 압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전공제한」에 기인한다.

기업의 생리가 최대이윤창출에 있다할 때, 채용즉시 실무에 투입하여 곧 바로 이윤으로 되돌리려는 기업의 「고급인력」배치방침으로 인해, 그간 법정·경상·공학계열 등을 제외하고는 취업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며, 심지어 모집광고에 전공제한을 명시하지 않는 기업들도 내부적으로는 면접등에 이를 사정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급증하는 대학입학 희망자를 대학정원의 증가로 지탱하려는 정부의 부마쇄과 사립대 재단의 재원(財源)희구욕이 합치게 교수나 교과과정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립되고 학과가 개설된 상황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제 인문계열학과의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설정하여, 진학이나 유학이 아닌 순수취업을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자신의 진출분야를 결정하여 이에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제한규정이 많은 대기업보다는 경제성있고 전망있는 중·소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독일은 학비와 비자 인터뷰가 없으며 세계에서 한국 유학생이 두번째로 많은 학문탐구의 요람지! 당신도 이젠 국내비용정도로 조기에 독일유학을

학비가 없는 종합대학, 유대·미대·체대

독일 유학·연수설명회

오스트리아 · 스위스 · 이태리 · 스페인

방학 어학 음악 기타 연수

설명회 : 4월25일 오후 4시 인링구아본교

매월초개강 inlingua®

독일어

어학증명서 독일대학에서 인정

회화·문법·독해

독작·PNdS

이태리어 회화 문법

유학생 항공요금안내

세계적 권위의 외국어학교

인링구아 서울

종로구 관철동 19-19 (종로서적 뒤 세브빌딩 4층)

☎ 733-3804, 735-7923

운전을 배웁시다

23년 전통·성실한 교육

특전

① 드라이빙 마스터에 의한 시청각 교육
② 빠이스 무료 운영
③ 대학생, 직장인단체 특별우대
④ 외국(이민)출국자 특별환영
⑤ 실습시간 자유선택
⑥ 통학버스 무료 운행
※ 면허소지자 시내운전연수

★★★컴퓨터 교육시설 완비★★★

學校法人 新進學園

新進자동차학원

개강 : 매주 月요일

수시접수 (야간·휴일도 접수함)

永登浦 學院	영등포 양평동 경인고속도로입구	0036~7 (633) 3962 3963
西 部 學院	은평구응암동 신진공고 앞	(356) 2341~3
北 部 學院	도봉구 번동 북부경찰서 뒤	(994) 2861~3

과학 아이디어가 생활 아이디어로 - 신화테크

(주)신화테크

너 셀피아 달았지?! 정말 니 방에만 울렸지?! 아! 근심하지!! 밤 12시에 아무도 모르게 통화할 수 있으니 말야!

젊음의 통화법 - 셀피아

젊음은 통화에서 마저 자유롭고 싶다!

540-1521-11 마지막 두자리수가 주는 통화의 자유 - 셀피아

젊은이에게 대화란 마치 산소와 같은 것 - 자유로운 밤의 대화를 위해 내 방의 전화기 만으론 이제 만족할 수 없다! 나만의 전화번호를 갖자!

셀피아 - 셀피아는 기존의 전화번호에 두자리수의 추가 코드번호를 부여하므로 나의 전화는 셀피아를 부착한 내 방의 전화기에만 벨을 울려줍니다. 셀피아 - 바로 통화의 자유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판심있는 대학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364-6578

●보급 특가 판매 실시
젊음의 축제를 맞아 특별 판매를 실시합니다.
(구입시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세요)
구입처: 본사(540-1521~4, 547-2031~2)
이대앞 지노바다(312-5200)

◇본교 학회활동 점검

「공동」노력으로 운영돼야 하는 학회

심층분석

사회과학과 전공학회 연계위한 노력 엿보여
질적비약 이룰 수 있는 연석회의 강화 필요

과학생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학회」가 대중화를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과사업과의 연계성및 구체적 사업계획이 미진하여 이를 극복할 수 방안 모색이 시급히 요청된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경우 서양어대학 25개학회, 동양어대 26개학회, 정책과학대 17개학회, 사범대 12개학회, 법과대 3개학회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경대의 경우 공식적인 학회 형태는 없고 풍물패등 소모임이 존재한다.

이들 학회들은 주로 역사·정치·경제·철학 등을 공부하는 일반적 이름의 사회과학학회라는 명칭으로 정하나 과설정에 맞게 「정치경제연구학회」, 「통일과학학회」, 「역사정치연구학회」 등 다양하다.

전공학회의 경우 어학계열과인 경우 그특성을 살려 어학을 강화하기 위한 소그룹학습(스터디그)의 학회와 전공강의에서 미처 체득하지 못한 각 나라의 정치·경제·역사를 학습하는 학회가 있고, 비어학계열인 법경계열의 경우 신방과 「보도사진부」, 「광고학회」 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언론고시준비반」 등의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정치외교학과의 경우 「시뮬레이션(모의실험극)」 있고, 사범대는 「교육학회」가 각 과마다 건설되어 있어 과학생들의 전공에 대해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다.

학회활동은 일상적 사업으로 공개되고 외화되어야 한다

용인캠퍼스는 서양학대 14개 학회, 동양학대 25개학회, 인문대 15개학회, 자연대 22개학회가 있다.

용인캠퍼스 역시 사회과학학회와 전공학회 그리고 독서토론회 등 다양하다. 서양학대 플란드어과에는 「여성학회」가 존재한다. 동양학대엔 과특성을 살린 인도어과의 「아슬란」(인도철학) 등이 마련되어있다. 인문대의 경우 철학과 특성에 맞게 「사회철학」「동양철학」「한국철학」 학회 등이 있고 사학과는 「답사추진위원회」내에 탁본반, 북한답사추진위원회, 북한 근현대사추진위원회 등이 있어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언어학과엔 전공학회인 「방언연구회」외에 「를과 콜」이라는 컴퓨터연구회 등이 있으며, 자연과학대에는 사회과학학회 뿐만 아니고 전공을 살린 학회도 다수 있다.

이렇듯 생각보다 많은 소모임들이 다양한 대학인의 생활을 위해 자치적으로 조직되었고 그 운영 또한 과 자치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지게 된다. 그러나 서양어대 학술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학우의 「학회에 대한 평가는 어느 과에 조국의 한을 풀고자 남누리 북누리 농부님네 정성이 깃들며 땀내음이 배어있는 쌀을, 서로 바꿔먹고자 하는데 이땅 주인도 아닌 미국이 교역질서 운운하며 이를 하지 때는 세계 나가려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숫자에 윤장관 지레 겁을 먹은 모양.

하물며 옛날 서당 훈장이 른들도 입금의 실정에 상소를 올릴 수 있었거늘 6공시대 스승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 당하니.

○·5월의 하늘은 언제쯤이면 제색을 찾을 수 있을까.

10여년간 빛고을에는 2천여명의 영령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다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강경대열사를 필봇으로 4월을 마감시키고 민주열사 6분이 노가리 타도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며 산화해 어떤 학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회에서 담보하고 있는 내용과 이들을 과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외화시켜 내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학회의 의미를 논해야 한다」는 지적처럼, 학회활동이 과자치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부분과 과성원들을 단결시켜내는 일에 복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옳바른 평가가 내려져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서울·용인 양캠퍼스 학회활동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많은 종류의 학회들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회과학학회의 경우 주로토론 학습(세미나)를 중심으로 전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전공학회의 경우 몇몇 과에서 사회과학과의 접목을 시도하긴 하지만, 주요 무게중심이 전공을 강화하는 소그룹학습(스터디) 형태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가심에.

노가리, 뵈는게 없나본데 좋다, 이젠 민초들의 귀와 입을 모아 노가리 구워먹기 투쟁에 총진군할 것임.

○·60년 영광된 날을 잊지 못해 수도방위사령부에 「비상경계령」을 내려놓고 여차하면 밀어 버리겠다는 퇴역장성 노씨가 음흉한 미소로 현 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데.

같은 학살원흉인데 전씨는 7년 해 먹고, 자긴 3년밖에 하지 못했는데 그냥 물러나긴 학살자에 대한 모독이라나.

93년 민주의 날, 그때 노씨의 갈 길은 오리발 청문회가 아닌 교수대의 그늘임을 민초 여러분 「이사람 크로니클」, 믿어 주세요.

단명위기

두번 죽이려나

○…평소 서울도심의 교통이 혼잡하기는하지만, 교통경찰이 너무 많지? 요즘은 잠조들도 교통정리를 하나본데.

지난 고 강경대열사의 장례식 행렬에 잠조들은 최루탄폭죽에 안나오는 눈물, 물대포로 짜내며, 망자가시는 길을 비호한답시고 서울역이며 신촌로터리 할 것없이 다 막아 여의도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망자를 혼란케 하더라.

먼저 시청앞 지나가신 이현열열사 태우에게 하시는 말씀, 「너 죽거든 한뼘도 묻힐 곳이 없으니 이쁘누」.

○…자다가 봉창두드리는 별 희한한 소리를 듣겠구만.

3·8선에 가로막혀 자유로이 못가는 신세에 허리잘린 분단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단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현장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놀란 교육부나리님네들, 애초의 중징계 방침에서 주동자급에 대한 약한 징계방침으로 크게 선심썼다고.

시국선언 교사들이 한들일 때는 이처럼 불어난 숫자에 윤장관 지레 겁을 먹은 모양.

하물며 옛날 서당 훈장이 른들도 입금의 실정에 상소를 올릴 수 있었거늘 6공시대 스승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마저 박탈 당하니.

○·5월의 하늘은 언제쯤이면 제색을 찾을 수 있을까.

10여년간 빛고을에는 2천여명의 영령들이 「독재타도」를 외치다 쓰러지셨고 이번에는 강경대열사를 필봇으로 4월을 마감시키고 민주열사 6분이 노가리 타도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며 산화해

◇대동제 이렇게 치루어야 한다

대동의 참뜻으로 하나되는 자리

급박하게 진행되는 학의 분위기와 관련, 개최의 여부와 시기 문제로 논란이 많았던 5월 대동제가 본교 용인캠퍼스에서도 여러번의 논의를 거친 끝에 5월28일(화)부터 31일(토)까지 4일간 개최된다.

여러가지 중요사안이 걸쳐있는 상황을 고려해 그간의 대동제가 낳은 문제점인 학우들의 참여 부족과 술로 끝나버리는 주동제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지난 4월 7일 경기 학생총회에서 시월제로의 통합을 인준 받아 서울캠퍼스의 경우엔 대동제가 10월에 치뤄진다. 이에반해 본교 용인캠퍼스를 비롯해 고려·연세·서울여대 등은 대동제 개최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진 끝에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상태다.

최근에 대동제를 끝낸 고려대와 서울여대의 경우 이러한 두가지 양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대의 경우 『대동제는 학생회로 단결하는 집단적인 놀이, 투쟁의 장, 대동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기조아래, 1과1행사 갖기 운동을 벌여 과단위 학생회의 자립성을 키움과 동시에 기층 학우들의 결집을 도모했고, 대동제 기간중에도 단대 집행부들의 단식투쟁, 점은 리본달기,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해 현시점에서 대동제의 참된 역할을 담아내려는 목적의식적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각 단위별로 지난 해와는 달리 많은 조직력의 변화를 가져 왔던 과단위의 힘을 단대·총학단위로 결집시켜 내지못해 학우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의 장으로서의 대동제역할을 올바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90년 대동제 「모의 가두시위」장면

본교의 경우에도 『5월 투쟁의 동력을 결집해내고 6월 투쟁을 준비하는 장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91년 대동제의 기조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듯이, 대동제 개막식에서 「열사추모제 및 노태우 타도선언」을 시작으로 「호 응」공연 「지금 시기 우리의 대동제는」이 치뤄지고,서양학대의 「통일동서남북」 자연대 「노태우 처단대회」 인문대 「화염병 제작대회」등이 첫날에 진행되는 행사들이다.

둘째 날엔 동양학대 「과·단대 깃발 그리기」, 사회과학대의 「체전」 서양학대 「전교조 선생님과의 만남」 인문대 「통일학교」등이 개최되고,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여성문제위즈대회」와 「큰들살이」, 그리고 학생회관앞에서 「모의 가두시위」가 벌어진다.

세째날엔 모현농민들을 초청해 농학연대의 틀을 다지는 「동아리한마당」과 서양학대 주최의 「민중가요대회」 그리고 저녁엔 「전대협출범식 참가원아제」행사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1일(금)에는 왕산대청소와 「임수경기 쟁탈 족구 결승대회」 「전대협 참가 출정식」이 열린다.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주점이 난무해서 분위기를 또다시 「주동제」로 끌고 가지 않을 이상, 대동제의 제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거듭된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상황에서 학우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내기 위해 행사의 기조는 물론이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선전방법이 과및 단대·총학단위에서 대동제기간 동안 계속 전개돼야 할 것이고 짧은 준비기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위 학생회와 총학생회내에서의 자발적이고 빈틈없는 행사 준비 마무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우들 스스로가 놀이에 매몰되기 보다는 대동제의 참모습을 세우고, 현정속에서 대동제의 의미들을 세워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느 때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와 대동제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대동제를 지켜보는 시각또한 다각적이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동제의 개최여부나 또 몇몇 간부들에 의해 논의되는 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작풍에서만 찾을 일도 아닌 듯 싶다.

우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91년도 대동제의 기조와 방향성을 간부, 학우 모두 함께 공유하며 대동제라는 큰 틀속에 다양한 형식들을 가미해 5천학우 모두가 기쁘게 대동의 의미들을 세우고 사회민주화를 향한 의지로 함께 북돋아 나가기 위한 힘있고 충실한 행사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김유경 기자〉

학내·외 분위기 속에 개최여부 논란
「주점」자제하고 준비에 만전기해야

인 방법이 동원됐다. 그리고 총학의 이같은 기조에 부응하는 학우들의 분임토론 또한 지속적으로 전개돼 대동제 기간 동안 차분한 분위기로 이끌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실질적으로 대동제를 올바르게 치뤄내기 위한 학우들의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은 본교에 더욱 절실하다.

한편, 고대와 서울여대에서의 대동제기간 동안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촉박한 준비 기간과 이로 인한 준비부족으로 「행사의 형식이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행사에 있어 과·단대·총학생회의의 유기적인 결합이 미비했고, 행사내용 또한 다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시행되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생했고, 흥보 부족으로 인해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각 단위별로 지난 해와는 달리 많은 조직력의 변화를 가져 왔던 과단위의 힘을 단대·총학단위로 결집시켜 내지못해 학우 모두가 참여하는 대중의 장으로서의 대동제역할을 올바로 수행해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교의 경우에도 『5월 투쟁의 동력을 결집해내고 6월 투쟁을 준비하는 장으로의 자리매김을 하겠다』는 91년 대동제의 기조에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듯이, 대동제 개막식에서 「열사추모제 및 노태우 타도선언」을 시작으로 「호 응」공연 「지금 시기 우리의 대동제는」이 치뤄지고,서양학대의 「통일동서남북」 자연대 「노태우 처단대회」 인문대 「화염병 제작대회」등이 첫날에 진행되는 행사들이다.

둘째 날엔 동양학대 「과·단대 깃발 그리기」, 사회과학대의 「체전」 서양학대 「전교조 선생님과의 만남」 인문대 「통일학교」등이 개최되고, 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하는 「여성문제위즈대회」와 「큰들살이」, 그리고 학생회관앞에서 「모의 가두시위」가 벌어진다.

세째날엔 모현농민들을 초청해 농학연대의 틀을 다지는 「동아리한마당」과 서양학대 주최의 「민중가요대회」 그리고 저녁엔 「전대협출범식 참가원아제」행사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31일(금)에는 왕산대청소와 「임수경기 쟁탈 족구 결승대회」 「전대협 참가 출정식」이 열린다.

이상의 내용을 봤을 때, 주점이 난무해서 분위기를 또다시 「주동제」로 끌고 가지 않을 이상, 대동제의 제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거듭된 논의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상황에서 학우들을 끊임없이 이끌어 내기 위해 행사의 기조는 물론이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다양한 선전방법이 과및 단대·총학단위에서 대동제기간 동안 계속 전개돼야 할 것이고 짧은 준비기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단위 학생회와 총학생회내에서의 자발적이고 빈틈없는 행사 준비 마무리 또한 요구된다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우들 스스로가 놀이에 매몰되기 보다는 대동제의 참모습을 세우고, 현정속에서 대동제의 의미들을 세워 나가려는 노력들을 보여야 할 것이다.

여느 때와 다르게 급변하는 정세와 대동제가 맞물리면서 논란이 많았던 만큼 대동제를 지켜보는 시각또한 다각적이고,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동제의 개최여부나 또 몇몇 간부들에 의해 논의되는 대중에 기반하지 않은 사업작풍에서만 찾을 일도 아닌 듯 싶다.

우선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91년도 대동제의 기조와 방향성을 간부, 학우 모두 함께 공유하며 대동제라는 큰 틀속에 다양한 형식들을 가미해 5천학우 모두가 기쁘게 대동의 의미들을 세우고 사회민주화를 향한 의지로 함께 북돋아 나가기 위한 힘있고 충실한 행사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다.

〈김유경 기자〉

〈알림〉

이번주 4단만화 「외톨수」는 본보 사정상 게재되지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비둘기칠판

이문벌

■제2회 임수경 통일백일장

살아가는 의미가 새로운 5월, 5월의 뜨거운 가슴을 담아낼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아픔, 철철한 가슴을 풀어내고픈 분들에게 원고지를 빌려 드립니다. 많은 젊음이 우리 곁을 떠나간 5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때:5월23일(목)오후 3시-왕산배 음터
5월24일(금)오후3시-이문배 음터
·곳:왕산배음터-명수당 잔디밭
이문배음터-미네르바 동산
·분야:시, 수필(감상문 포함), 서간문, 꽁트, 3행시
·상금:전체장원 10만원, 각부문 우수작 5만원
(단, 3행시는 3만원)
·발표:6월초순(외대 28호및 학보, 대자보)

〈「외대」편집위원회〉

■습득물 공고

주민등록증과 현금서비스카드를 잃어버리신 학우는 외대학보로 찾아오십시오.
·이름:송원찬
·주민등록번호:681212-1031129
상업은행 현금카드

〈착한 비둘기가〉

■작품전시회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열사의 뜻을 기리기위해 기획 전시회를 준비하였습니다.
·때:5월22일(수)~24일(금)
·곳:학생회관1층 전시실

〈만화모임 「해갈」〉

왕산골

■봄 농촌 봉사 활동을 갑시다

·때:5월24일(금)~26일(일)
·곳:경기도 여주군 일대
·준비물:세면도구, 작업복, 슬리퍼, 비상약 등
·회비:3천원
·접수:총학생회 연대사업부 및 각 단대 연대 사업부, 과학생회
*경대의 피묻은 옷자락을 조국의 대지위에 휘날리는 그날을 위해…

어머니 길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한숨과 눈물의 씻어내림을 위해…

〈제12대 자주혁신 총학생회〉

■통일운동 및 북한바로 알기 사진전

국민학교 교과서를 통해 살펴본 반통일적 교육 실태
·때:5월22일(수)~24일(금)
·곳:학생회관 로비
*통일의 열망을 가진 5천 왕산인 모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한겨레 사랑 모임〉

■여성주간

총여학생회에서 성상품화없는 신나는 세상을 위한 여성주간을 개최합니다. 풍부하고 유익한 많은 행사가 준비되었으니 남·녀 학우 모두 오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때:5월27일(월)오후4시~29일(수)
·곳:명수당에서 선포식 가진 왕산 구석구석

〈총여학생회〉

■제1회 부총장배 야구대회

·때:5월27일(월)~31일(금)
·자격:과·동아리·동문회
*월요일 신청기간이 단국대와의 농구시합으로 연기
·신청마감:5월23일(목)오후 5시30분
·대진추첨:5월24일(금)학생회관 농구부실

〈농구반〉

동문회

(왕산)

대일고
·때:5월24일(금)오후5시30분
·곳:학생회관 식당
·안건:거룩한 첫 동문회 개최

호산고
·때:5월26일(일)오전10시
·곳:오산고 대운동장
·안건:졸업생 및 재학생 동문체육대회

(이문)

배재·양정고
·때:5월25일(토)오후
·곳:대학원앞 대운동장
·안건:은사님들을 모시는 자리 마련

대구고
·때:5월22일(수)오후6시
·곳:상징탑

〈비둘기칠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5월18일 이후 전국 상황 취재◇

중단없는 전진, 그리고 승리…

향후 투쟁은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한다.

20일 광주에서 시위도중 전경 집단구타로 시민 한명 중태

노동자·농민·도시빈민등 기층 민중들 투쟁의 주체로 나서

강경대 열사 민주 국민장 광주 노제

19일 새벽 4시 강경대 열사를 실은 운구행렬과 광주에 도착해 광주시민·학생들의 보위속에 경찰 저지선을 뚫고 노제장소인 도청으로 향했다.

오전 10시경 광주은행 사거리에 도착해 8만여명의 시민·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노제를 시작했다.

이날 문익환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자리에 와서 여러분의 함성을 들으며 또 하나 느낀것은 노정권은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정부는 미국놈부·노동자 군수사업을 위한 정부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입니다. 대학사가 우리앞에 등터오는 것을 보면서 강경대열사의 뜻을 새깁시다』라고 밝혔다.

오후 12시 10분 노제가 끝난 후 운구행렬이 시민·학생들은 대열을 지어 망월동을 향해 출발했다.

오후 3시경 망월동에 도착해 2천여명이 보는 가운데 4시 20분경에 강경대 열사의 시신이 안장됐다.

5월 20일 광주긴급 상황 발생

20일 새벽 광주카톨릭 센터앞에서 시위하던 대열을 전경들이 사방에서 진격해오자 시민 권장수(22)씨가 카톨릭 센타에서 한국 은행쪽으로 인도를 통해 뛰어오다 전경이 방패로 밀치며 진압봉으로 무차별 구타하여 쓰러지자 전경 8~9명이 방패, 진압봉, 구두발 등으로 무차별 짓이기고 또 여기에 5~6명이 더 가세하여 집단구타를 자행 항후 권장수씨를 그자리에 두고 가버렸다.

시민들이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현재 중태라고 한다.

노동운동 진영

지난해 대공장노조의 「민주화 바람」에도 불구하고 올 임투에서 보여준 현대중공업과 포철노조의 패배, 대위자동차 등을 비롯한 정권의 초장경 탄압은 향후 임투와 노동운동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바로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에서 바로 강군사건이 터졌던 것이다. 사건직후 노동운동 진영은 그전에 꾸려졌던 「임금인상 쟁취와 물가폭등 저지·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 공동 투쟁 본부 (이하 공투본)를 비상시국에 맞는 비상 투쟁체로 전환시키면서 노동자들을 이후 정치투쟁의 장으로 조직화시켜 왔다. 전국노운협 박용식씨는 『앞으로 이러한 돌발적 변수를 얼마나 역동적으로 이끌어 내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지난 16~18일간은 총력투쟁 기간으로 설정했었는데 그것은 임투시기의 총파업과는 달리 정치적 총파업 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정치의식 고양과 반민자당 전선의 동력을 보다 확고히 구축하는 가운데 향후 노동운동 탄압을 돌파하고 임투의 승리적 여건을 확보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즉 전국민적 연대투쟁 전선에 동참하면서 각 단위 사업장별 임투 분위기를 고양한다는 의미로 요약될 수 있다.

박용식씨는 이것들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승리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노동운동의 정치적 공간 확보」그리고 「대기업 노동자들의 향후 투쟁」이 변수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농민운동 진영

「전농」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 진영 역시 현정세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 계기로 인식하고 있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일관되게 진행시켜 왔던 반농민 정책과 관련해 잇달은 농민들의 항의시위와 자살 등으로 증폭된 정부 불신은 이제 대규모 농민항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군 사건외에도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아울러 농자재 가격이 30% 인상되고, 의료보험료는 30%나 인상되었던 반면을해 추곡수매가는 겨우 5% 밖에 인상되지 않았던 것도 농민들의 투쟁을 촉발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부안군 농민회의 강진원씨는 『현재 부안군에서는 강경대 학생의 분향소를 설치해 놓고 농민들이 매일 현정권 퇴진을 위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농민들은 이번 사건이 결코 농촌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정부의 노골적인 농업포기·농민말살 정책에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다는 겁니다. 거기다 요즘엔 쌀수입 개방설도 나오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라고 말한다.

현재 전농은 5월 18까지를 총력투쟁 기간으로 하고 그 이후의 투쟁은 향후 정세의 변화와 각 지역 농민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투쟁에 근거할 방침이다.

지난해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농민시위가 말해주듯 현재의 농촌 현실은 언제 「제2의 여의도 농민항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하나의 「화약고」이다. 현정세는 바로 그러한 화약고에 불을 당긴셈이다.

문제는 전농민의 지도구심체로서의 전농의 지도력 확보와, 각 지역 농민회의 강화다. 또한 하나로 뭉쳐 들고일어나기만을 기다리는 농민들을 얼마만큼 조직적인 대오로 정비하느야와 지역마다 상이한 농민들의 정치의식 수준들을 보다 강고한 반민자당 투쟁의 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평균화 작업 등이 현재 농민운동의 중요한 관건이 아닐수 없다.

현정세는 운동세력에 보다 확실한 투쟁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반민자당투쟁을 위한 전 계급, 계층의 총력전인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5월투쟁 자체가 무기력해지고, 현정권은 여론조작을 통해 또다시 혹독한 공안통치를 자행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사회부〉

범민주 연합전선으로의 힘찬도약

범국민 대책회의 이수호 위원장과의 기자 간담회

△4월 26일 강경대 학우 죽음이후 5월 18일 2차 국민대회까지의 「범대위」를 중심으로 벌였던 투쟁을 간단히 평가한다면.

—강군사건 직후 제민주단체와 국민연합을 중심으로 범국민대책회의를 꾸려 사실상 현정권에 대해 전면항쟁을 조직화 시켜왔다. 범대위를 중심으로 벌였던 지금까지의 투쟁을 평가해 볼때 두가지의 핵심과제가 제기된다.

그것은 첫째,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현재의 대책위를 「범민주연합전선」으로 조직을 한단계 상승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고, 둘째, 조직내부의 사상통일과 집행부의 지도력 강화가 현 시점에서 제기되는 핵심 과제라고 본다.

△5월 18일이후 대책위 본부를 연세대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기고 또 대책위 명칭을 「범민주연합」으로 바꾸려 하는데, 이러한 명당성당놓성과 명칭변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강군사건이후 곧바로 대책위가 꾸려졌고, 이후 장례일정 등 모든 것을 대책위가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하면 대책위가 강군장례를 위한 대책위라는 인상을 받기 쉽다. 때문에 국민들의 그러한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보다 장기적인 투쟁의 전망속에서 명동성당으로 옮겼다. 요약하자면, 향후 투쟁이 갖는 전국성을 담보 하기위한 지도부 내부의 결속강화 그리고 이후 투쟁이 결코 장례식으로 그치지 않는 바로 결사항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현재의 투쟁은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뚜렷한 지도구심이 없는 실정이고 범대위가 그 역할을 하기란 현재의 모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전국 각지의 지도구심 확보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광주·부산·대구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투쟁의 파급력이 놀라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범대위가 그 투쟁의 올바른 지도구심이 되지 못했다. 때문에, 현재 각부문과 지역을 포괄하는 대표자 모임을 상설화할 방침이며 지방단위의 민주연합체를 한곳으로 집결해서 통일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명동성당 농성이 갖는 의미도 바로 그러한 전국단위의 지도구심을 확보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다.

△6월 중순으로 예정된 광역의회가 현 정세속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고 광역의회에 대한 범대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광역의회를 놓고서 운동진영간에도 이론이 분분하다. 크게 두가지 논의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현정권과 야당의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선거 전면거부와 또하나는 광역의회에 대해 「어떻게 참여 할 것인가」를 고민하자는 선거투쟁론이다. 현재 범대위는 여기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상태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조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투쟁을 통해 「선거」라는 정치일정속에서 국민여론을 무마하려는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폭로하고, 국민대중을 보다 조직화 시켜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후 광역의회는 바로 민주와 반민주의 구조를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투쟁일정및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먼저 일정은 23일경 시국대토론회를 열어 그간 투쟁의 성과들을 총화해 내고 향후 범대위의 뚜렷한 투쟁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25일엔 3차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이전 투쟁보다 한단계 높은 투쟁의 질적발전을 꾀할 것이며, 그것을 계기로 중·장기적 투쟁으로 전화할 것이다.

또한 박창수 한전노조위원장의 죽음과 관련해 우리는 현재에도 계속 자행되는 노동운동 및 기층 민중운동에 대한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변혁의 전략적 목표 달성은 바로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에 놓고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 때문에 향후 일정은 노동자·농민·빈민을 중심으로 강화하여 민중연대 전선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박현숙 기자〉

25일 3차국민대회 계기로 투쟁의 질적변화 모색

범대위 확대·강화하여 장기투쟁의 전망 수립해야

전경이 감싸주는 언론사

기자의 눈

『인간 전두환. 전두환씨는 아랫사람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오늘의 「지도자적 자질」을 수도생활보다 더 엄격하고 규칙적인 육군사관학교에서의 같고 닦았다』

1호선 시청 지하철역 부근에서 제 갈길을 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뿌려진 이 유인물은 「조선일보 80년 3월 4일자」를 인용하여 조선일보의 반민족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축소·왜곡보도로 경대를 또 죽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항의방문하려던 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이하 서언협)소속 대학생중 60여명은 구호를 외치며 조선일보 쪽으로 가려다가 즉각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연행되었다. 나머지 50여명의 학생들은 역부근과 구내에서 「시민선전전」을 전개해야만 했다.

『조선일보를 사지도 보지도 맙시다』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선전을 할 때마다 시민들은 간간히 박수를 쳐주며 『수고한다』고 격려를 해 주었다.

이런 경황중에도 「전경들의 숲」에서 조선일보 기자들은 그날도 신문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인데, 지나가는 시민들은 조선일보에 매치된 수백명의 전경들을 보면서 「오늘 무슨 데모가 있나」의 아한 표정을 지었다.

앞뒤옆에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전경들이 유독 한겨레신문, 동아일보등이 아닌 조선일보를 지키는 것은 조선일보의 반민족성·반민주성·친권력성에서 기인한다.

제도언론의 한계로 역대정권의 숱한 압력에 앞아서 「꿀치럼 달디단」아첨을 해왔던 70년의 곡필언론사, 조선일보야 말로 정화대만큼 장구하게 국가의 중요공공기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강제징용 찬양사설, 5·16쿠데타를 미화한 기사, 광주항쟁을 「반란」으로 서술한 사설등을 남긴 화려한 경력을 가진 조선일보가 이젠 또다시 정권에 아부하는 「나팔수」가 되어 버렸다.

진정 올바른 언론의 역할을 강경대군의 죽음이후 대학언론인들 사이에서 주창하고 나선 것은 그다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언론의 기본 입장이 어느쪽인가를 보면 언론이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정치인들 재벌들 편인가, 국민들, 노동자들 편인가를 말이다.

조선일보규탄집회에서 외친 김준호 한성대 언론협의회 회장의 말은 지금까지 언론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이후 취해야 할 자세를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민주세력들이 언론사와 방송사를 단 3일간만 장악할 수 있다면, 민중권력은 쉽게 쟁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원영 기자〉

"아버지가 왜 기쁜지 아니?"

"아버지가 일하는 현장을 둘러본 소감이 어떤지 궁금하구나. 아마 네가 대학인으로 늘상 대하고 보던 것들과는 많은 부분이 다를게다. 50년대 후반만 해도 기껏해야 떡방아나 농기구 소재생산이 고작이었던 것이 이제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항공기나 자동차 엔진 소재를 만들고 있으니 엄청난 발전을 이룬 셈이지. 이곳이 우리나라 기계공업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면서 사반세기를 이어왔듯이 아버지의 삶도 이 소재생산분야 발전과 함께 해 왔단다.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밤을 새우며 연구도 많이 했지. 그래서 남들로부터 빼테랑이란 소리를 듣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더 배우고 더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믿어, 그게 바로 대우의 정신이자, 내 삶의 철학이지. 네가 시작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때마다 아버지는 무척 기쁘단다. 지난 우리세대 많은 사람들의 땀과 희생으로 오늘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부디 너도 네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더욱 멋진 내일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의 땀과 노력을 존중하며, 서로 이해할때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은 한결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우리의 세상살이 속에서, 자신의 분야를 개척하며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을 찾은 용철군.
▼ 대우중공업 신현덕과장(소재사업본부 생산1과)과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 신용철군.

대우그룹

양캠, 5·18계승 집회 개최

서울, 선전선동대회 개최·시국토론회 무산
용인, 국민대회 출정식 갖고 민중연대 결의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강경대열사장례식」과 「제2차 국민대회」를 준비하며 집회와 강연회 등을 개최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3일(월) 오후6시 노천극장에서 「강경대열사 추모식」을 가진후 14일(화) 열린「강경대열사 장례식」참가를 시작으로 지난 주 투쟁을 전개했다.

14일(화) 장례식참가와 15일(수) 전개된 「긴장고조 전쟁분위기 고조 민방위훈련 무력화 투쟁」을 전개한 총학생회는 이어 16일(목)에 「제2차 비상시국 대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우천관계와 참가 학생수의 부족으로 인해 토론회를 열지못했다.

17일(금)에는 「광주항쟁 영령과 5인열사부활및 광주항쟁 계승투쟁 애국외대 결의대회」가 오후4시30분 노천극장에서 4백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벌어졌다.

문화선봉대와 「새물결」의 공연이 함께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총학생회장 정원택(상경·경제4)군은 『민중을 억압하는 공안통치의 배후 조종 국가는 해방후 47년동안 내정간섭을 해온 미국』이라며 『애국의대 청년학도와 4천만 민중은 미·노 일당의 공안통치 분쇄와 타도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 앞서 열린 교지편집위원회주최 「대국민 선전·선동대회」에서는 여학생위원회, 언론문제연구회, 중국어과,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이 선전·선동 경연을 벌였고 중국어과가 대상을 받기도 했다.

18일(토)에 열린 「제2차 국민대회」에는 본교 8백4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종로, 을지로, 명동 신세계백화점앞과 서울역 등지에서 투쟁을 전개했다.

한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5일(수) 본교생 7명이 성남주민교회에서 노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입한데 이어 17일(금) 이문학관 앞 해방광장에서 4백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광주 민중항쟁 11주년 정신계승및 노정권 완전퇴진을 위한 국민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광주의 5월 영령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동양학대 학생회장 윤영적(아프리카어·4)군은 『우리가 5월의 푸른 하늘을 보며 감상에 젖을때 광주는 피로써 절규했다』며 『이제는 한맺힌 5월의 영령들에게 투쟁으로 화답할때』라고 말하고 국민대회 출정을 선포했다.

이어 용성총련 의장이며 본교 총학생회장인 이국형(인문·철학4)군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현 정권은 이땅의 죄없는 청년학생을 쇠파이프로 죽여놓고 이제와서는 엄숙하게 치뢰져야 할 장례식마저도 최루탄과 폭력경찰로 저지하고 있다』며 『이제 광범위한 민중연대 투쟁으로 노정권타도의 그날까지 선봉에서 싸워나가자』라고 청년학생의 투쟁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문화선전대의 민자당깃발 화형식과 이덕인(인문·언어2)군의 현 시국을 풍자한 창을 내용으로한 판굿이 펼쳐져 집회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서울, 민방위 훈련 거부 투쟁
『북한 적으로 간주, 통일의 방해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지난 15일(수) 민방위훈련 거부투쟁(이하 거부투쟁)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같은 날 시강대, 연세대 등에서도 거부투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전대협내 각 대학으로 거부투쟁이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본교는 지난 15일(수) 오후2시경 민방위훈련 시이렌이 울리자 마자 1백여명의 학생들이 교내를 돌며 『영구분단 획책하고, 공안정국 조성하는 민방위훈련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는 등 거부투쟁을 진행했다.

총학생회측은 이번 거부투쟁이 홍보부족과 학생들의 인식부족으로 참여학생이 적었다고 평가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계획적인 홍보작업을 통해 대중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상경대학생회장 박상욱(상경·경제4)군은『북한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는 민방위훈련은 발전적인 통일논의에 방해물이며 주한미군 주둔 등을 합리화 시키고 있다』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민방위훈련이 없어질때까지 거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언협, 조선일보 규탄 시위
폭력 정권에 아첨 중단 촉구

본교 학보사, 영자신문사를 비롯한 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이하 서언협) 소속학생 2백여명은 지난 5월16일(목) 오후2시 서강대에서 「박승희 김영균 학우 정신개승 및 조선일보 규탄대회」를 가졌다.

본보편집장이며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의장을 맡고 있는 최원일(법·법학3)군의 현시국에 대한 정세발표와 조선일보 규탄·화형식등이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지난 5월5일(일) 서언협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서언협의장으로 선출된 양연육(전대언론협의회의장·사학3)군은 규탄성명서를 통해 『조선일보는 강경대열사의 죽음을 측소·왜곡보도하고 있다』며 『폭력정권에 아첨하는 반민주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회를 마친후 1백여명의 학생들은 오후6시경 시청앞 조선일보사를 항의방문할 예정이었으나, 4백여명의 전투경찰이 조선일보 주변에 배치돼 있어 덕수궁쪽 시청 지하철역에서 조선일보 방향으로 『열사를 두번죽이는 조선일보 각성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전진하려다 본교 언협장 이상필(동학·일본어4)군을 비롯한 59명의 학생들이 전경에 의해 남대문경찰서로 모두 연행됐다.

한편 나머지 50여명의 학생들은 지하철역 부근에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며 시민선전전을 벌였으며, 연행된 학생들은 그날 오후 10시경 모두 훈방됐다.

지난 17일(금) 용인캠퍼스 4백여명의 학생들은 해방광장에서 「5·18 추모 집회 및 국민대회 출정식」을 가졌다.

양캠, 봄 농촌활동 실시
여름 농활 사전답사·준비 차원

서울·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각각 6월초와 5월말에 봄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을 실시한다.

〈용인〉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는 91년도 봄농활을 경기도 여주 및 모현지역에서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총학생회는 지난해까지 경기도 평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던 농활을 올해는 장소를 다소 변경해 파단위의 농활대는 경기도 여주지역을, 동아리연합회 농활대는 모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짧은 농활기간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중심으로 여름농활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실시될 봄농활에 대해 총학생회 연대사업부 농민분과장 정일형(서학·서반어어4)군은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농활을 통해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문제와 현 정권의 반민중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며 1차적 선전 목표를 밝혔다.

〈서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농민분과는 오는 6월6일(목)부터, 8일(토)까지 2박3일 동안 전북 부안에서 「봄농활 및 여름농활 1차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 학복위, 다음주 설문조사
학내복지 시설평가 실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오는 27일(월)부터 1주일동안 「1991년도 7천 외대인에게 물어본 외대인의 복지」라는 주제로 학내 복지시설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 설문은 식당, 구내매점, 휴식공간, 구내서점·문구, 임대매장, 도서관, 자판기, 복사실, 학복위 사업 등 학내 제반 복지시설에 대한 2백30여개의 구체적·세부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객관식과 절대수치 문답이 주어진다.

학복위 위원장 류계환(서양·독어4)군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학내 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이 설문조사의 의의가 있다』며 『문항수가 많아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학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히 설문에 응하는 것이 절대적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복위는 이번 설문조사를 전 학과의 강의실을 돌며 실시하고 여름방학 동안의 평가기간을 거쳐 복지시설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며 이후 대학당국과 구체적 협상에 들어 갈 예정이다.

용인, 통일 노래한마당 30일개최, 23일 1차모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문화부에서는 대동제 기간인 오는 5월30일(목) 「통일노래한마당」을 개최하기 위해, 23일(목)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1차모임을 같은 날 (23일)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총학생회 문화부장 정명근(서학·플린드이3)군은 『이번 행사를 대동제 기간에 연 것은 새로운 대동제 문화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라며 『술자리를 갖는 것 보다 학생들이 집회가 아닌 이런 문화공간에서 하나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학생생활연구소 직업적성검사실시

본교 학생생활연구소는 오는 27일(월)과 29일(수) 양일간에 걸쳐 양캠퍼스에서 「적업선택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3순위 직업까지 파악할 수 있고, 결과는 검사 당일 알아볼 수 있다.

서울캠퍼스는 29일 오후3시 대학원 104호에서 용인캠퍼스는 27일 오후2시 교양학관 401호에서 각각 실시하고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인문대 학추위 발족
『전대협에서 모범』

용인캠퍼스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이하 학추위)」는 지난 17일(금) 인문대 앞 마당에서 「애국 인문대 제2기 학추위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 인문대 학추위장 조홍재(사학4)군은 『단대학생회 단위에까지 학추위가 건설된 곳은 전대협에서 애국인문대 뿐』이라며 『조국 통일에 있어, 전대협의 모범으로써 창조적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현진 열사 묘비제막 오늘, 모란공원서

용인캠퍼스 총학생회 산하 3인 열사 추모사업회는 오늘(21일)까지 모란공원에서 오후1시에 「고(故) 남현진 열사 묘비제막식」을 거행 한다.

이번 남열사 묘비제막은 그동안 추모사업회에서 기금마련을 위한 수익사업과 학생들의 성금으로 세워지게 됐다.

이사람

『이곳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뜻있는 많은 분들을 알게되었고, 민주연합전선 구축의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그로부터 신심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지난 5월15일(수)부터 성남주민교회에서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이하 용성총련) 구국결사대의 「공안통치 종식 및 노태우 살인정권 퇴진을 위한 구국 무기한 농성」참가자중 용성총련 총 주체를 맡고 있는 용인캠퍼스 총여학생회장 전태진(서학·체코어4)양의 말이다.

단식으로 결의를 밝힌 회사원, 택시기사, 자영업자들이 농성을 하루앞선 5월14일(화)에 시작하였고 이에 결합한 외대 구국결사대 일곱명은 시민으로부터 내어진 민주화의 열의에 배우는 입장에서 굳은 결의로 참가하고 있다.

지금의 시국은 전국민의 참여를 요하고 있고, 이런 계기에 의해서가 아닌 집속적이고 강고한 투쟁의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된 이번 구국농성은 청년학도의 선봉투쟁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 땅의 젊은이라면 마땅히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알며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성총련 구국결사대원 본교 총여학생회장 전태진양을 만나〉

『이후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안에 뜻있는 많은 분들을 알게되었고, 민주연합전선 구축의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그로부터 신심을 얻게 되어 기쁩니다.』

표출되어 농성대의 결의는 무척 높지만 그만큼의 값진 효과는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라며 『교내에서 해야할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것을 볼때는 가슴이 답답하지만 농성기간중 지지방문을 다녀가신 주민교회인, 분당세입자 여러분, 복정 일용노조분들이 「마음은 항상 이곳에 머물지만 생존적 이해때문에 같이 농성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을때 그분들의 따스한 사랑에 대해 정말 감격을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양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시국에 대해, 오히려 퇴색한 기상으로 무관심해져 가는 젊은 주체들은 현실에서 체득한 개혁의 의지들을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층시민들을 보며 각성해야할 것을 강조한다.

민주화 투쟁의 해방구 성남지역을 투쟁의 근거지로서 공고히하고 민주연합전선의 공간적, 내용적 구심점이 될 구국농성에서 이들은 노태우정권 퇴진, 민자당 해체, 공안통치, 중단, 공안내각 해체와 책임자 구속 처벌, 파쇼기구·악법 철폐, 야당의 투쟁, 미국의 독재지원 축출, 열사 폭곡과 언론의 파행 중단 등 9개사항을 결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양은 18일 또다시 맞게 된 고등학생과 30대 여성노동자의 분신을 보며 『식민통치, 독재치하 47년 속에서, 의식과 조직에 선진적이어야하고 사회변혁 주체의 큰 부분인 청년학도가 동력을 일어내지 못하고 주춤거림으로써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마땅히 아파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알며 분노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청년학도의 전적인 투쟁의 동참을 호소하며 말을 맺는다.

〈이충미기자〉

교직원동정

◎「초록회」 23일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개최

본교 여직원 모임 「초록회」는 오는 23일(목) 오전11시부터 미네르바동산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일일찻집을 개최한다.

동아리소식

◎서울 우리말연구회, 「한글날 되찾기 지지 서명」운동 전개

서울캠퍼스 동아리 우리말연구회는 이제(20일)부터 오는 24일(금)까지 도서관 앞에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청원서형식의 「한글날 되찾기 지지서명」운동을 벌인다.

"찢고싶다!, 아니 찢어야 한다"

새날을 여는 민족 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5월25일, 반민자당 투쟁으로 조국의 진정한 자유와통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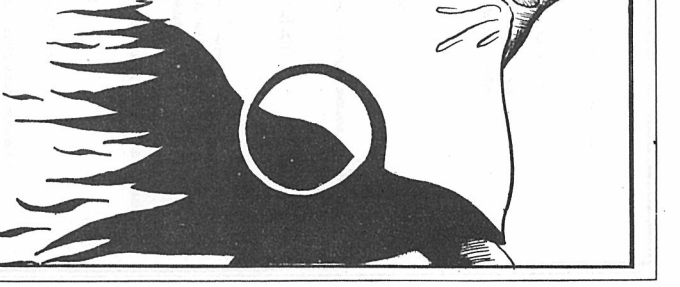
5공과는 비교가 안되는 하루 한명꼴의 노동자 구속,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포기하게 만든 집세, 땅값등을 포함한 물가폭등, 농촌을 황무지로 만들고 있는 갖가지 농업정책과 우루과이 라운드, 기네스북에 오르고도 남을 국회안건 신속(날치기)통과, 정경유착비리의 표본 한보비리, 우리끼리 짝짜꿍 수서비리, 범물지구비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페놀사건, 유괴여야 생매장, 조카살인, 친문학적 숫자의 학원침탈과 학생운동, 언론운동 탄압, 강경대학우 구타사망,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학우 분신원인제공등…

구국의 결단,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우리의 자랑스런(?) 민자당이 오직 '나라를 구한다'는 신념하에 벌여왔던 벌여오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반민족적, 반역사적 정당 민자당의 창당으로 인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왔으며 야당도 하루아침에 (투표를 거치지 않고도) 여당이 될수 있다는 새로운 신화를 만든 민자당이 이제 그 1주기를 맞습니다.

작년 전국은 최루개스안개속으로 몰아넣을 정도로 국민들의 국민한 축하(?)를 받은 민자당 창당식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오늘 집으로 가는길에, 약속으로 가는 길에, 일이 있어 가는길에, 반민자를 외치는 시위대를 만난다면 시간을 조금 내어서라도 이렇게 외쳐봅시다.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反民自

다시 시작되는 "오월광주"

수필 참 종교인의 모습은…

몇일전 광주 집으로 내려가는 기차에서 아저씨 한분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5·18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그당시 광주에 살던 사람이면 누구나 그 처참함과 공포를 기억하고 있지만 아저씨는 광주 사람중에서도 금남로 일대의 사람,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직접 맞은 사람만이 알수 있는 일이며,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해도 모른다며 그시절을 회고하셨다.

그러나 그당시 광주에 살았고 국민학교 3학년이던 나는 감히 5·18의 산 증인으로 이야기하고 싶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전의 일이라 희미한 기억들이지만 단편의 기억들은 지금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사금세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세집을 얻어 광주로 이사온 기쁨이 채 가시기 전이었다. 텔레비젼에서 시국에 대한 뉴스를 전하며 학생이 던진 돌에 군인(?)이 맞는 모습을 연일 수없이 보았다. 몇일인지는 기억나지 않아도 문화방송 건물이 활활 타는걸 일절 옥상에서 보았는데 그이유는 이러한 편파보도 때문인듯 싶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5·18). 학교에 가지않아도 된다는 방송에 일절 친구 범수와 나는 마냥 즐거웠다. 그뒤 어느날인가 친구와 나는 뒤쪽의 도로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을 보고 따라 갔다. 눈에 익은 시내버스와 광주 고속버스들의 깨진 유리창 사이로 많은 시민들이 몸을 내밀고 연이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으쌰! 으쌰! 하고 외쳤으며 지금까지도 기억에 생생한 구호-「전두환은 물러가라, 물러가라」를 지금의 홀라송에 맞춰 불러 댔다. 도로변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주로 아주머니들이셨다)은 박수를 쳐 주었고 어린 나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덩달아 신나 박수를 쳤다.

간간이 차를 세우고 사람들을 태웠으며 그 사이에 가게 아저씨가 음료수를 상자째 올려 주기도 한 것이 기억난다.

얼굴의 주인집 형은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형을 부축이나 따랐던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나간다는 그형을 졸라 따라갔다. 도청으로 가자 총을 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두건에 부모님이 계셨다. 유난히 달이 밝았던 날로 기억하는 그날에 차마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이야….

당시 우리집은 멀리 무등산이 바라보이는 전망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장독대에서 어머니에게 낙하산이 떨어진다고 하셨다. 순간 그것을

수많은 총성에 놀라 두려움으로 떨고

을 두른 사람도 눈에 띄었다. 처음엔 그들이 무서웠지만 형이 우리편이라고 해서 안심하였다. 그때 도청앞에는 『상무관』(지금도 있다)이라는 체육관이 있었는데 당시 그곳에 시체들이 있다고 했으며 그앞에는 꽤 긴 줄이 있었다. 형은 나는 어려서 못들어 간다고 했으며 겁이 무척났던 나는 형을 졸라 집으로 가자고 했다. 자전거 뒤에 앉아 형을 꼬옥 부둥켜 안고 가는 길에 집차를 타고 두건을 두른 사람이 시민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도 하였다.

그후 방송차량에서 애처롭고 긴박한 소리가 들리는 밤이 있었다. 무언가가 처들어 온다며 시민들이 나오기를 호소하는 그방송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기억하는 음성이다. 애끓고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이 들었다. 얼마간 잠이 흘렀을까. 문득 잠 깨어보니 마당보려고 장독대로 나가려하자 부모님은 나를 말리며 뒤로 밀치셨다. 그리고 이내 곧 굳화발 소리가 아주 빠르게 들려왔다. 아버지는 순간 내 입을 막고 침묵을 지키시다가 방안으로 들어가 솜이불로 나를 덮으셨다. 숨을 죽이고 아무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금방 누군가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 올 것같았다. 그리고 바로 총을 들이댈 것만 같았다. 수없이 많은 총소리가 들려왔고 두려움으로 범벅이 되어 떨고 있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마당에는 총알 2개가 떨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새벽에 들린 발소리는 계엄군의 소리였고 그들이 뒷산에서 내려왔던 것이었다며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날 이후도 우리 가족은 꼼짝없이 솜이불을 덮고 떨고 있어야 했다. 그 새벽의 두려움은 훗날 군인들이 우리집으로 처들어 오는 꿈을 수없이 꾸게 하였다.

그후로 다시 학교에 나가게 되었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중 어떤 누나의 유방을 도려 냈다, 임신한 아줌마의 배를 칼로 찔렀다는 등의 말을 듣고 나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일이라며 친구를 거짓말장이라고 놀렸다. 그러나 점차 크면서 나는 너무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것들은 모두 사실이었다. 이제 말로 다하랴…. 기차안에서 만난 아저씨의 말처럼 겪지 못한 이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희 젖가슴…』

해마다 당연히 찾아오는 5월이 언제든 슬프고 언제는 분노에 차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러나 올해의 5월은 더욱 슬프다. 죽음으로 시작되어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방월동에 묻힌 민주혼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올 5월은 광주 살인마의 장기집권 음모속에 숨져간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젊은 그들을 묻어야 한다. 그러나 이"묻음"은 단지 시작일 뿐이요, 「5월 광주」는 서울에도 부산에도 온나라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철없던 열살박이 꼬마—이제는 어느덧 머리가 자라 「5월 광주」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5·18 11주기를 맞는 이맘, 이불속에 들어가 몸뚱이를 뒤척이며 예전의 기억을 하나 하나 떠올린다. 권좌에 오르기 위해, 식민지를 놓치기 싫어 동족을 죽이고 사람을 죽인 그 처참한 기억을.

어느새 머리맡의 베갯잇이 축축해졌다….

박 경 렬
〈상경·경제1〉

새벽 찬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

이른 새벽에 눈을 뜨는 사람들에게 곧 시작될 요란한 생활을 알리는 소리가 아닌 때로는 마음을 고요히, 거룩한 분위기로 이끄는 소리이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이 소리는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해주는 것이 사실이다.

5월의 새벽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꽃다운 젊음이 메맞아 죽고 불로 산화해 가는 바로 오늘에도 새벽종소리는 들려오고 거리거리 최루탄가스가 먼지처럼 쌓인 곳에도, 깨진 돌위에도 이 소리는 파고 든다. 석가 탄신일이라 하여 가로수 전봇대 위에는 분홍색, 노란색 색지로 예쁘게 만들어진 연꽃등(燈)도 간혹 불어오는 바람에, 동요할 뿐이다.

그러나 이런 성스러운 소리와 음직임외에도 해마다 이맘때면 들려오는 거센 함성의 소리. 그 소리를 해마다 되풀이되는 관성의 소리로 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진정한 민주의 길에 서있지 않음을, 자주의 길에 서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리라.

열사들의 죽음이 전국의 거리를 뜨겁게 달구어 여름이 채 오기도 전에 무척이나 덥던 5월의 초순, 평소 못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던 소위 「지성인」 「명망있는 종교인」들은 민중의 「신뢰」를 저버리고 권력의 권좌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한한(?) 신뢰」를 읊었다. 카를릭 계열학교인 서강대의 총장은 잇따른 열사들의 죽음을 가리켜 「분신을 조장하는 불순한 어둠의 세력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는 말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또 제도언론의 선봉에 선 조선일보의 한 지면에는 지금은 온뇌했지만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다고 인정을 받아왔던 한 목사님이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책임은 선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있다고 하며 우리를 실망시켰다.

할말이 없다. 어떤 종교인들은 분노하여 시국성명과 단식농성을 하는데 이들의 모습은 이렇게 태연자약하다. 아니, 최루탄보다도 더 매울게

인간을 참인간으로 살게함이 종교의 본뜻 일진대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이 어처린 상황인가? 오히려 그들을 4천만 민중이 성교, 구원시켜야 할 상황이다. 종교인의 한사람으로서 더욱 슬픈 일이 아닐수 없다.

종교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이다. 자연에 대해서 불완전하고 모든 사회적인 구속과 억압에 대해서 자유스럽지 못한 인간은 스스로의 내부에서 완전하고 자유스러운 세상을 동경함으로써 이러한 세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결국 「종교」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

결국 종교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는 모든 구속과 억압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을 생활속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극복, 변화하게 하여(이의 최종적 계기는 구원이다)인간으로 하여금 참인간으로 살게하는데 있는 것이다. 종교가 이러한 모습으로 자리잡을 때만 종교는 인간에게 의미가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종교가 인간의 구원을 제일의 근본으로 한다면 종교의 인간구원의 장(場)은 어디인가.

그것은 바로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일수 밖에 없다. 사회는 인간의 현재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에 찬 삶을 영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는 사회속에서 그 뿌리를 내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종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점점 더 푸르름을 더해가는 저 나뭇잎의 색깔은 정녕 아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는 파쇼 독재 정권에 의해 무려 4천만의 민중이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그뿐 아니라 참다운 인간으로 살고자 하는 그 어떤 노력조차도 공권력에 의해 짓밟히고 있다.

이디 그뿐이랴. 전정 4천만 민중의 종교로서 자리하려는 종교인들조차도 탄압을 받는 상황이…. 이는 종교의 근본부터 정권의 이해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으로 종교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이들이 「참 종교인」이랍시고 민중을 호도하는 모습을 보며 과연 「신」은 어떠한 생각을 하실까 자못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과 교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의 마음을 어느정도 알 수는 있을 것 같다. 옛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그러니 이미 「신」의 마음은 저기 분노의 얼굴로 거리곳곳을 메운 민중의 마음, 바로 그것이리라.

김 인 호
〈서학·체코2〉

문화 옹달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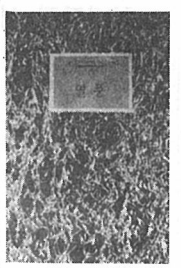
그대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은 지음

민족문학 작가의 원로로서 「만인보」, 「백두산」등의 시집을 펴 냈던 고은씨의 수필, 산문집이다. 분단으로부터 격동의 세월을 지켜보고 문학가로서 「양심」의 글을 써 온 작가가 그간 내면에 숨겨 두었던 「말」을 조심스레 드러낸 작품이다.

『내가 할말이 많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내가 속해 있다는 열렬한 증거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 그것은 증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동시대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반영하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고은씨는 서문에서 말하고 있다.

〈아침퍼냄 값 3천 8백원〉



열풍·그해 여름

—김서정의 지음

『누가 나에게/이길을 가라고/일러주지 않았네/어쩌면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어쩌면 내가 가다가 다 가지 못할 길/누가 가라 하지 않았네/그러나 멀쳐 한 걸음…눈물고개 넘고/노동자의 길을 걸어…철벽철벽 핏빛 내리는 길따라/한길로 갔지』(조호상의 「누가 나를 이길로 가라 하지 않았네」중에서)

노동자들의 문학창작의 장으로 그폭을 넓혀 나가고 있는 전태일 문학상의 제3회 수상작들을 엮은 책이다. 추상적이고 구호성 짙은 기존 작품의 한계를 딛고 생활의 경험을 다양하게 담아 진솔하게 삶을 묘사한 작품들로 노동자 문학의 변화, 발전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제1권인 「열풍」에는 노동자로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고 그 소감을 쓴 박윤배씨의 「자본수필」을 비롯, 시부문 당선작, 보고문학 부문 당선작과 단편소설 부문 당선작이 실려 있다.

그리고 이용노조를 깨고 민주노조를 쟁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산, 창원지역 노동자들의 희망과 분노를 그린 김하경씨의 장편소설이 제2권인 「그해 여름」으로 출간되었다.

〈세계퍼냄 값 4천 2백원, 4천 5백원〉

파수대

"이제는 우리도 싸우련다"

—지난 18일(토), 성남 시청앞에서 열린 「제2차 국민대회」중 경적시위를 벌이던 운수노동자—

〈이재원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학년도 후기각 대학원 학생모집

대 학 원

1. 모집과정 및 학과, 인원
가). 석사학위과정 (5개영 36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중국어과, 노어과, 서반아어과, 아랍어과, 이태리어과, 힌디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포르투갈어과, 태국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지역학계=아주지역연구학과, 중남미지역연구학과, 중동지역연구학과, 동구지역연구학과, 북미지역연구학과, 아프리카지역연구학과, 서구지역연구학과
사회과학계=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신문방송학과, 무역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과, 사학과
인문과학계=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전자계산학과
나). 박사학위과정 (4개영 23개학과) : 각 학과 약간명
어문학계=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중국어과, 서반아어과, 일본어과, 아랍어과, 노어과, 국어국문학과
언어학과
사회과학계=국제학계연구학과, 경제학과, 법학과, 경영학과,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신문방송학과, 무역학과
연합학과, 경영정보학과
인문과학계=철학과
이학계=물리학과, 화학과, 수학과(신설)
2. 원서교부 : 1991년 6월3일부터 6월14일까지
3. 원서접수 : 1991년 6월10일(월)부터 6월14일(금) 17시까지
4. 전형일시 : 1991년 6월29일(수) 오전10시부터
5. 전형방법 : 필답 및 구술시험
가. 석사과정 : 1) 전공 2) 영어(단, 영어과는 제2외국어) 3) 구술시험
나. 박사과정 : 1) 전공 2) 영어 3) 제2외국어 4) 구술시험

(☎ 962-7117, 961-4104)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명
2. 모집학과 : 가) 경영학석사 : 무역학과, 국제경영학과, 해운경영학과, 정보관리학과, 보험경영학과
나) 경제학석사 : 국제경제학과, 국제지역연구학과
3. 시험과목 : 가) 석사과정 : 1) 논문 2) 외국어(2개국어중 택1) 3) 면접
나) 연구과정 : 1) 서류전형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1년 6월3일(월)부터 6월11일(월)까지
5. 시험일시 : 1991년 6월29일(토) 오후2시
*비 상경계 전공자도 입학할 수 있음, 재학생 25%이상에게 장학금 지급함, 해운경영학과 석사학위취득자는 해부사시험에 특전있음
*심부경력이 다년간 있고 재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분을 특별부대함.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962-7118, 961-4109)

교 육 대 학 원 (야간)

1. 모집과정 및 인원 : 석사학위과정 ○○명
2. 전공분야 : 국어교육,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서반아어교육, 일본어교육, 철학교육, 윤리교육, 역사교육, 사회교육, 지리교육, 교육행정, 상업교육, 전자계산교육
3. 시험과목 : 1) 필답시험(전공) 2) 면접
4. 원서교부 및 접수 : 1991년 6월3일(월)부터 6월10일(화)까지
5. 시험일시 : 1991년 6월29일(토) 오후2시
*현직교사는 수업료의 25%를 하비감면함
*재학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
*초·중등학교 교장(감), 장학관(사)은 입학시험을 필한 후 특별전형할 수 있음
*석사학위취득자는 본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962-7119, 961-4116)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원 교학과에 문의 바람
주소 :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전철1호선 회기역(외대앞)하차)